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 신앙과 삶

1 + 2  
JAN + FEB  
2021 vo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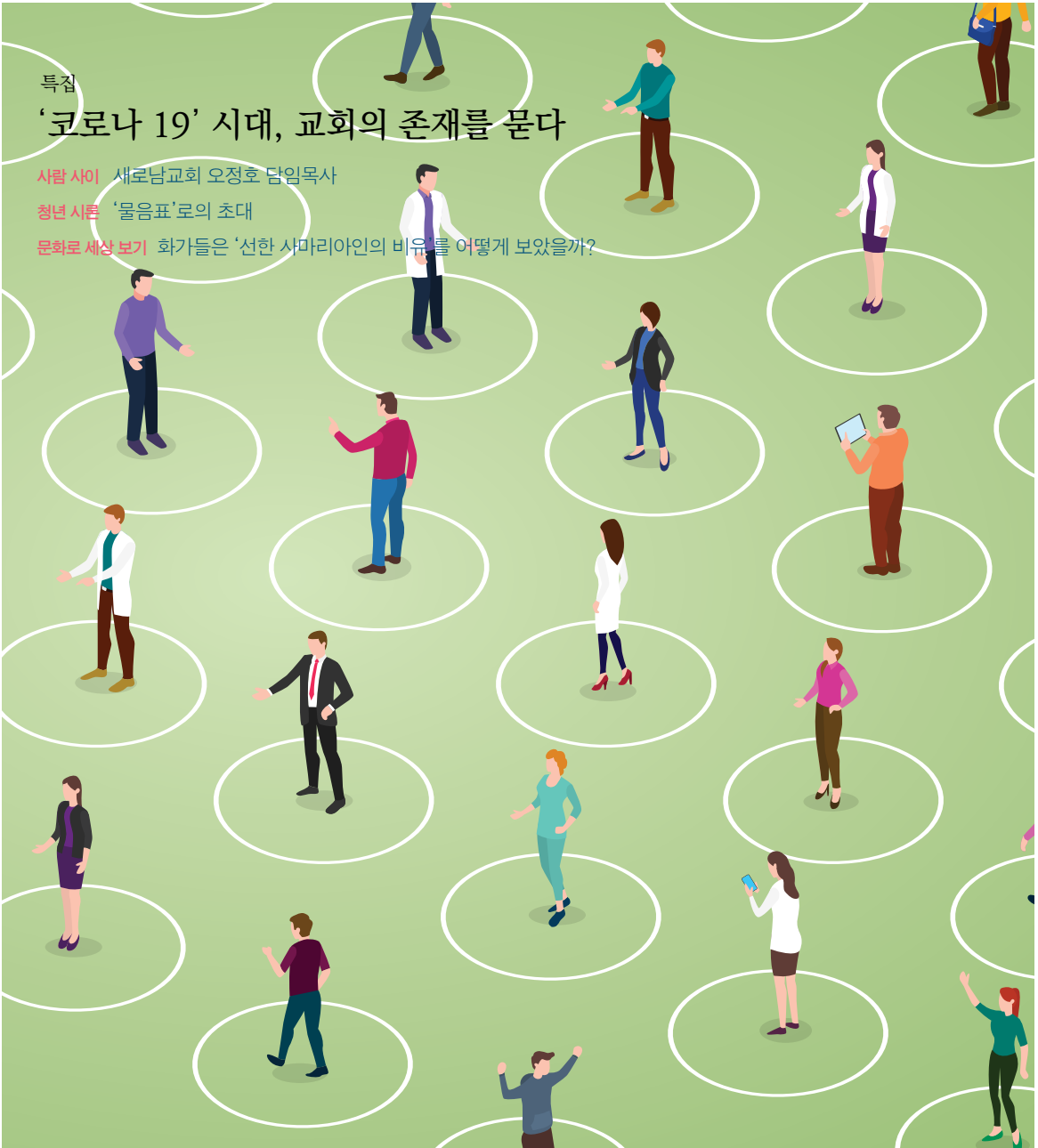
특집

## ‘코로나 19’ 시대, 교회의 존재를 묻다

사람 사이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

청년 시론 ‘물음표’로의 초대

문화로 세상 보기 화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보았을까?



ISSN 2671-8731

# Contents

JANUARY + FEBRUARY · 2021

## 시선

교회는 생명부터 살려야 | 손봉호 02

## 편집장의 말

‘코로나 19’를 넘어  
빠르고 온전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며 | 신국원 04

## 특집

### ‘코로나 19’ 시대, 교회의 존재를 묻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 정현구 06

교회, 질문 앞에 서게 되다 | 우상현 08

가치 지향의 교회를 세워야 할 카이로스 | 문지웅 10

‘코로나 19’ 시대와 지역 교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유준 12

지금은 낮은 곳으로 내려 갈 때이다 | 김용삼 14

비대면의 임시 숙소에서 | 윤성현 16

## 사람 사이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 18

##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그 씨름의 여정 | 양성만 22



2021. 1+2월호 | 제10호(통권 225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청년, 삶을 고민하다

|                                  |    |
|----------------------------------|----|
| 청년 시론                            |    |
| ‘물음표’로의 초대   백승찬                 | 24 |
|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정문선 | 26 |
| 청년, 일터 이야기                       |    |
| ‘코로나 19’와 예배의 모습   양세원           | 28 |
| 기독교 ‘교사’가 아닌 ‘기독교 교사’의 삶   이지영   | 30 |

## 문화로 세상 보기

|                                      |    |
|--------------------------------------|----|
| 영화를 보다                               |    |
|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불타는 어머니 교회   추태화          | 32 |
| 미술을 보다                               |    |
| 화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보았을까?   서성록 | 34 |
| 책을 보다                                |    |
| ‘코로나 19’ 속에서 교회를 돌아보다   안명준          | 36 |
| ‘코로나 19’와 목회적, 교육적 성찰   신형섭          | 38 |
| ‘코로나 19’ 시대의 캠퍼스와 청년 사역   배석현        | 40 |
| ‘코로나 19’ 시대와 ‘공적 신앙’의 회복   석종준       | 42 |
| 불신앙과 혁명   황영철                        | 44 |

## 교회 路

|                                |    |
|--------------------------------|----|
| 강남교회 ‘새벽밥’ 봉사   김상순            | 46 |
| 어느 청년의 감사 편지 : 강남교회 성도님들께   무명 | 47 |

## 온전한 지성

|                           |    |
|---------------------------|----|
| ‘코로나 19’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
| 성경 경제학적 접근   이윤재          | 48 |
| 팬데믹과 기독교 선교   유용욱         | 49 |
|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에 관한 연구   양희석 | 50 |

## 소식

|            |    |
|------------|----|
| 사무국/관련기관   | 51 |
| 재정보고/후원자보고 | 53 |



# 교회는 생명부터 살려야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재난’, ‘위기’, ‘고통’ 같은 단어는 상황에 대한 ‘서술적인’(descriptive) 표현이기보다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제거하라는 요청이며 상황에 대한 ‘명령적인’(prescriptive)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약 17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고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는 ‘코로나 19’는 그런 재난이며 위기다. 이렇게 심각한 재난은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기관에 예외 없이 긴급하게 그 극복을 요청한다. 교회는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교회가 오히려 앞서야 한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막 8:36), 성경도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인권 존중 사상은 기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인 창세기 9장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우선적으로 사람의 생물학적 생명이 소중한 이유임을 제

시하고 있다. 영생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형을 받을 정도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목적도, 보람도 없이 대대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역사적으로도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유지했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이었다. 주후 2세기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핍박받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걸려 죽게 내버려진 사람들을 구제하므로 불신자들의 칭찬을 받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1527년 독일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나는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혹시 내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웃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한 다음 제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결코 이웃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면서 예배드리라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번 위기에도 한국 교회가 대구 동산병원처럼 앞장 서서 전염병 치료와 확산 방지에 발 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했다더라면, 그동안 실추되었던 명예도 회복하고 교회 성장도 촉진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방역 대책에 항의하면서 집단감염을 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 말고, 전 교회가 일어나서 이 재앙이 하루빨리 지나가도록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방역에 앞장서며, 이웃이 감염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도 감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윤리적인 것은 ‘악을 행하는 것’(作爲, commission)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不作爲, omission)도 포함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방치해서 죽게 하는 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동기 윤리’에만 익숙해져서 살의(殺意)가 없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6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이 살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한국의 최대 종교인 기독교가 방역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방해가 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죽는다 한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취약계층이 더 많이 감염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당장 굶고 앓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성도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국외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유다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인들이 연보를 모아 보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모든 연보는 구제헌금이고, 주로 재난 때에 이뤄졌다. 교회의 헌금을 가장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가 바로 이런 재난의 시기다.

방역, 구제 활동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인류와 교회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또한 의인 열 사람의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한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고치라고 권고하며 대신 회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교회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이다.

인류가 저지른 잘못은 물론 한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쾌락과 편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자연을 파괴해 버린 것이 가장 심각하다. 지금의 재앙이 선진국이나 중진국에 더 심각한 것도 그것을 암시한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난은 단순히 많은 사람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인종 자체를 종말로 이끌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 경고하고 먼저 회개하며 예방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 ‘코로나 19’를 넘어 빠르고 온전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19’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침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결국엔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말았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글 <시선>은 교회가 무엇보다 “생명 살리기를 우선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현장의 여러 목회자들의 고뇌 찬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영동교회 정현구 목사님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오히려 예배, 모임, 교육, 선교 속에 존재했던 내적 위기를 의식하고 본질을 찾아 사역의 방식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암제일교회 이상현 목사님도 교회의 본질 회복의 기회 됨을 강조합니다. 구제와 선교라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실천 사례를 통해 선교적인 사명 실천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서향교회 문지웅 목사님도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훈련의 시민적 제자도가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필요하

다고 합니다. 은진교회 김유준 목사님은 사회의 불신과 반감을 넘어설 방안을 고민합니다. 비대면의 목회 상황에 대한 기술적 대처와 열악한 목회자 생계에 대해 한국 교회 내 나눔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런던 갈보리교회 윤성현 목사님은 영국의 ‘락다운’(Lockdown) 상황 속에서 모임과 흠어짐의 균형을 역설했고요. 서울역 쪽방촌이라는 최전선에서 맨몸으로 봉사해 오신 김용삼 목사님도 찾아가 나누는 예배를 통해 이 상황이 교회들이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해주었음을 증언합니다.

오정호 목사님(새로남 교회)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사님이자 오랜 동역자이십니다. 특히 학회 때마다 ‘새로남 우수 논문상’ 후원으로 대학원생 논문을 격려해 주신 터이라 박문식 학회장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셨고요.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됩니다. 우리 교계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 선제적 대처가 미흡했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그렇고요. 교회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공동체가 없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고만 현 상황을 너무도 아쉬워합니다. 20억이 넘는 교회 카페 수익금 전액으로 어려운 교회와 재난 구호에 사용한 간증은 울림이 큼니다. ‘새로남기독교 교’ 사역 소개 및 청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큰

힘이 됩니다.

양성만 교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원조 멤버입니다. 대학원생 모임 시절 함께 머리를 맞대며 모임을 인도하며 번역한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은 가장 많이 팔린 세계관 교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춧돌 자리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섬겨온 모범에 깊이 감사합니다.

<청년 시론>의 백승찬 형제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늘 물음표를 달고 살며 조금씩 성숙해가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박사 후보생으로서 '실직' 상태에서 '밥퍼 봉사'와 열악함의 대명사인 택배 새벽 일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일터>에서 양세원 자매는 서울시 마포구청 법무팀장이자 방역의 최일선에 배치된 공무원으로서 보고 듣는 상황과 마르틴 루터의 권면을 대조하여 소개하면서,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자세가 있다면 행정명령서를 들고 교회를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장소로 사용되길 바람도 적었습니다. 이지영 선생님은 대안학교의 현장 교사로서 비대면 상황의 어려움을 전합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영화 <로마서 8:37>을 통해서, 불편함과 그 너머에 있을 소망, 즉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읽어냅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미술가들의 눈을 통해 새롭게 이해할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해줍니다. 두 글 모두 코로나 상황과 씨름하는 특집의 메시지에 화답해줍니다. <책 읽기>들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실었습니다. 신형섭 교수님은 <재난과 교회>를, 안명준 교수님은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와 <교회 통찰>을, 백석현 목사님은 <7인 7색의 성찰의 방향>을 소개합니다. 네 권 모두 '코로나 19'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가

야 할 길들을 놓고 씨름한 집단 지성의 역작 모음입니다. 석종준 목사님의 <광장에 선 기독교>는 오늘의 공적 신앙의 회복을 위한 보다 큰 틀을 살핍니다. 웨슬리-황영철 두 분은 더 큰 틀에서 기독교의 사회문화적 책임을 살핀 <불신앙과 혁명>을 소개하고요. 고문산 목사님의 강남교회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의 원조입니다. 김상순 목사님은 그 배움의 실천인 고시촌 '새벽밥'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밥에 대한 감사를 담은 한 청년의 편지는 작은 섬김이 힘든 이들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지를 생생히 알게 해줍니다. 끝으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셋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교수님은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양희석 교수님은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 비판, 유용욱 교수님은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 선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알차고 시의성 있는 통찰들이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원고료가 없는 글을 성심껏 써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나마 민족의 명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회원들과 후원 교회 위에 넘치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 ✍️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실천신학)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 변증학)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코로나 19’ 시대가 가져온 위기가 실로 엄청나다. 교회도 그 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방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이 위기는 성전 파괴와 제사 중단의 위기를 겪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들은 회당을 세우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위기를 신앙 유지의 기회로 만들었고, 초대교회 역시 박해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중단된 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예배로 되돌아가는 것을 답으로 생각한다면 예배 위기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예배를 주일이라는 하루,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제한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 안에 내재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주일과 예배당 중심의 예배를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곧 예배의 위기를 극

복하는 대안은 아니다. 이미 가상공간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에 대한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상공간 예배는 모든 곳 모든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기회이면서, 예배를 종교 프로그램으로 전략시키는 위험도 된다.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설교의 내용이고, 비신자에게 소통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코로나 19’ 시대는 교회의 여러 모임도 중단시켰다. 큰 모임은 아예 불가능해졌고 작은 소모임만이 겨우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대형 모임이 어려워질 것이다. 모임의 규모가 클수록 사역의 열매가 많다는 생각이 위기 요소였음을 자각해야 한다. 모임의 크기와 만남의 질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크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큰 공간에서의 대형 모임이 아닌 작은 모임들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한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작지만 질 높은 모임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시대는 교회 학교도 중단시켰다. 그동안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왔던 터라 그 충격은 더 컸다. 하지만 신앙교육을 주일 한두 시간의 교육에 맡기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 자체가 이미 교육의 위기였다. 이제 신앙교육의 상당 부분이 부모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를 먼저 교육시킬 필요가 생겼다. 만약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그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의 주된 형태가 될 수 있다면, 이 위기는 신앙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선교지는 선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선교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고 인식하고 행동해야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교지는 그런 의식을 갖기 힘들다. 하지만 한국 교회도 역시 그런 의식이 없었다. 여전히 해외 선교는 헌신된 소수가, 국내 선교는 일부 교역자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부름 받은 성도들 모두가 삶의 현장에 보냄 받은 선교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시대는 성도들이 그들의 현장으로 가서 직접 만나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는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이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개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이전부터 예배, 모임, 교육, 선교 속에 존재했던 내적 위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질을 새롭게 붙잡으면서 사역의 방

식을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코로나 19’ 시대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안의 진짜 위기를 발견하고 새롭게 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현구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이다.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기독교사상사를 전공했다. 저서로는 <사계절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과 21세기를 위한 영성>, <영원을 품고 오늘을 걷다>, <하나님 나라 복음> 등이 있다.

# 교회, 질문 앞에 서게 되다

우상현 (중앙제일교회 담임목사)

‘목사들의 목사’로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 박사는 기독교가 구원론의 시대를 지나 곧 교회론의 시대를 맞이할 것을 예고했다. 그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하나 정확한 예고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듯 보인다. 새 천년 이후 지난 두 번의 십년 동안 한국교회는 신시대에의 적응을 핑계로 다양한 목회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계발해 왔다. 이에 발맞추어 사역자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목회 기술을 습득해야만 했다. 효과가 없지 않았다. 박수와 갈채 그리고 성공이 눈앞에 신기루처럼 아른거리기도 했다. 지난 20년은 그런 풍요의 끝자락의 그늘이었던 듯싶다.

‘코로나 19’는 지구촌 곳곳에 아픔과 상처를 주어 기존 질서를 세차게 흔들고 있다. 교회도 예외이지 못했다. 확진자가 전국 교회 곳곳에서 속출했고, 진원지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성급하게도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종 설문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나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일관한다. 온라인 플랫폼이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려 한다.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남긴 상흔은 기술적 담론 이상의 것을 요청한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사태를 지나는 가운데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고,

내/외부인들에게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냈다. ‘코로나 19’는 어떤 선배가 예고한 교회론 시대를 성큼 앞당겼음이 분명하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거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 등 상당히 목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위의 질문들을 던져보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모습을 증언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 대해 새삼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이들이 암묵적으로 교회의 목적을 성장과 지위 상승이라는 왜곡된 의도에 두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단 한 가지 순기능이 있다면 이 장막을 여지없이 걷어냈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성경은 그에 대해 단순하면서도 매우 분명한 답을 이미 주고 있다. 성경을 그래프로 상상해보자. 구약은 대체적으로 ‘수렴성’(convergency)을 보인다. 오실 메시아로 집중하고,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로 수렴된다. 반면 신약은 ‘확산성’(divergency)을 보인다. 세워진 공동체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흩어진다. 오신 메시아는 이방으로까지 확산되어 증언된다.

교회는 ‘수렴성’과 ‘확산성’의 정점에 위치하여 열개

의 역할로 부름 받는다. 먼저 교회는 부름 받아 모이는 존재다. 그래서 예배하며, 교제하고, 훈련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 교회를 ‘예배 공동체’ 즉 ‘사귀의 공동체’라 명명하기도 한다. 교회가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교회일 수 없다. 그렇기에 현 ‘코로나 19’ 시국은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예배와 사귀의 지속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예배가 유튜브(YouTube)로 중계되고, 줌(Zoom)이 소모임을 위한 방을 내주었다. 감사하게도 21세기의 영상기술은 값비싸고 복잡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예배 중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시점에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혜임이 분명하다. 예배와 사귀를 위한 기술적 노력은 21세기 판 예배당 건축이라 불릴만하다. 그러나 기술 사용에 관한 경고를 주목해야 한다. ‘의미있는’ 뉴스보다는 ‘재미있는’ 뉴스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닐 포스트먼(Neil Postman)의 방정식, ‘기술과 종교의 반비례성’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유튜브 서버 다운이 간판 기사의 자리를 차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체는 중립적이지 않고 그 자체가 곧 ‘메시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술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를 도울 수 있음에도, ‘예전적 지혜’(liturgical wisdo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교회는 또한 확산되어 흩어지는 공동체다. 이에 관하여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선교적’ 혹은 ‘공교회성’이라 명명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코로나 19’는 교회의 선교적 특성에 관한 시험대가 되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등 선교적 교회의 본질 앞에 서게 되었다. 전염병 앞에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교회의 ‘수렴성’만을 고려했다면, 예배는 멈출 수 없었

을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에 따라 흩어져 확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전 지구적 위기의 때에도 구제와 돌봄을 멈추지 않았다. 교회가 시민과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담당했다.

감사하게도 종암제일교회는 당회가 모든 교우들의 뜻을 모아 계획에 없는 작지 않은 지출을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었다. 월세가 높은 서울 경기 지역 개척 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으며,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교회 건축에도 상당한 힘을 보탰다. 교회 안팎에 경제 위기를 겪는 분들에 대한 손길도 잊지 않았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예산안 수입이 다소 줄어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헌신이었음에도 당회원들은 기꺼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 교회는 여전히 흐린 안개 속에 있는 듯하다. 어떤 분의 한탄처럼 방역전문가는 어느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는 분명 질문 앞에 서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피할 길이 없다. 교회가 모여 흩어져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순결과 지혜로 무장하여 푸르고 푸른 계절이 도래하기를 소망한다.

#### FAITH & LIFE



글쓴이 우상현



종암제일교회 담임목사이다. 총남대와 총신대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London Theological Seminary,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 M.)에서 수학하였다. 번역서로 <갈보리의 그림자>, <진짜 회심>, <목회>, <간추린 기록론>, <기독교의 역사> 등이 있다.

# 가치 지향의 교회를 세워야 할 카이로스

문지웅 (서향교회 담임목사)

‘코로나 19’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별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범위는 특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하게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문명사적인 전환 중이었는데, ‘코로나 19’가 도화선 역할을 하여 변화의 속도를 훨씬 앞당겼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회 또한 이런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향교회는 5년 전에 개척한 소형 교회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와 교회 구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사귄’(Communio Sanctorum)으로 이루어진다. 예배는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보내어진 자들의 신앙고백이자 격려와 회복의 ‘향연’(celebration)이다. 예배는 ‘미사’(Mass)의 의미대로 “자 이제 (세상으로) 해산합니다.”를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는 ‘교회당 중심주의’가 들어 올 틈이 없다. 목회란 교회당에 자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담아 낼 ‘전시(展示) 백성’(people of display)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그런 주장은 교회당에 오는 것을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려는 의도와 목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로 바꿔봐야 한다.

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Missional Church)로서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되었다. 교회의 예배는 세상에 보내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려는 ‘선교적 자기정체성’(Missional Identity)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서로 확인하는 자리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특히, 교회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우리끼리 모여 자기만족적이며 사적 경전에 몰든 예배와 모임만 하다보면 개인주의적 세계관으로 빠지기 마련이다.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성찰과 해석을 하는 곳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충실한 교회라면 ‘제의적’(ritual) 종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만들기’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이 있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는 청년 목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청년 선교에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서향교회는 20-30대가 성도의 70%를 차지한다. 청년과 장년(시니어) 사이의 세대차도 없고 청년들이 장년들을 닮으려고 하는 곳이다. ‘다민족/다문화 교회’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

을 이룬다. 서향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고엘뱅크'라는 청년을 위한 무담보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신용협동조합형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학자금, 주거비, 의료비, 급전 등으로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부채에 의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해주려는 은행이다. '고엘뱅크'는 교회 개척 때부터 설립되어 현재까지 대출 건수 총 46회, 대출금 약 5천 8백만 원이라는 실적을 세웠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믿는다면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사귄이 교회 안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적인 화려한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베풀어줌으로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때로는 대면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성도의 사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더욱 가시화된 불평등이라는 문제 앞에서, 교회는 선제적으로 상호 돌봄과 경제적 균등을 지향하는(고후 8:13-14) '희년적 대안 경제'의 작은 실재를 실험해야 한다. 또한 청년 주거와 창업에 대해 청년 선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연대와 협력할 곳을 찾아서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당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교적 교인'을 양산하던 시대는 지났다. 한 사람을 키우고 세워서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한량 높은 양질의 영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가꾸어야 한다. 교회는 계모임이나 상호

회가 아니라 전진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세상을 열망하는 '지사(志士)들의 결사체'다. 교회는 '세계관의 회심'을 통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세상의 빛이다. 권위주의적인 남성주의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전근대성의 잔재이니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없는 '시민적 제자도'를 배워 일상과 일터에서 시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 문명의 비전을 향도(向導)하는 첨병이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이다. 낡은 칼을 가지고는 새로운 요리를 할 수 없듯이,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신학'과 대안적 영성이 아니고서는 교회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생태 신학과 공동선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려야 한다. 평범한 해답 제시에서 벗어나 질문하고 의의를 제기하며 '의심을 거친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 한다. 시민사회에 유의미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풀뿌리 작은 교회 운동이 말없이 멀리 퍼져가는 새로운 시대를 꿈꿔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문지웅

서울 서향교회 담임목사이다. 성균관대와 총신대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말레이시아침례신학교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세광교회 부목사와 중국 선교사로 14년간 사역하다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GBS(Global Bridge of Sharing) 선교회 대표와 청년신학아카데미 대표로 섬기면서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한 콘텐츠 생산을 하고 있다.

# ‘코로나 19’ 시대와 지역 교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최근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감염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신천지나 다름 바 없는 기피 장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기독교 보수 세력의 극우 정치화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교단 헌법도 무시한 채 종교 권력을 세습하고, 빈곤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을 모르는 척, 호화로 온 교회 건축과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막 11:17; 막 13:2). 더욱이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헌신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의 대형 집회, 소그룹 모임, 심방, 친교 모임 등은 대폭 축소되어 유튜브나 줌, 구

글미트 등 비대면 온라인 사역으로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 가정별로 ‘경건의 시간’(Q.T.) 나눔과 일대일 양육, 그리고 소그룹 제자훈련 등 가정 교회로 정체성을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일예배도 단순한 예배 실황을 전달하는 수준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사역 전반에 걸친 창의적 목회와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이나 신학교 차원의 연구 활동과 지속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상황에 민감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정기’ 연구 모임이나 토론 세미나의 비대면 모임이 필요하다. 신학교나 교단 차원에서 영상 제작과 편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교과목이나 목회자 재교육이 시급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일대일 연결을 통한 온라인 활용법 안내로 비대면 사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거룩한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이기에 이는 온라인을 통해 신앙 성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선교적 교회론'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 형 공동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 공간은 신앙 활동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 오픈된 '공유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인근의 초중고와 대학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교회 인근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에 있어서 관공서와 전혀 협력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한, 교회가 건축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기보다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실직자,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도 있다. 실직자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장'(아고라)으로서 역할과 함께,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격려하는 정서적 쉼터로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그리스도대사단'의 경우, 2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 공과금과 식사비를 포함하여 매월 25만 원으로 행복한 회년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교회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비대면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교회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목회자의 생계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경우, 목회자 '생활보장부담금'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촌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월 1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전임 목회자의 십일조에 대한 절반을 총회로 보내 이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임이 아니거나 무임 목회자의 경우엔 배제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교회 목회자의 겸직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대안과 보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교단이나 복지 차원의 구제와 도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한시적으로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지원보다 '전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Basic Income)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앞장서서 국민적 합의와 제도화를 위한 건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이다. 연세대에서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연세대와 한신대 겸임교수이다. 특별히 캠퍼스 사역 전문가로서 '연세차세대연구소' 소장을 맡아 캠퍼스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모색하면서, 선교단체인 '회년세대'를 지도하며, 대학 청년을 위한 회년 공동체 '그리스도대사단'의 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 지금은 낮은 곳으로 내려 갈 때이다

김용삼 (소망을찾는이교회 담임목사)



한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주거 위기 가정을 도와달라고 했다. 대상 가정은 자녀가 셋이고 '한부모 가정'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 SH 전세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자기부담금을 준비하지 못했다. 교회가 기꺼이 비밀 언덕이 되어 주었다. 얼마 전 보증금을 갚았고 그 가정의 고3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교회가 마지막 비밀 언덕이 되어 줄 수 있어 감사했다. 올해는 이 가정 외에도 두 가정에게 보증금 등이 지원되었다. 교회에서는 주거공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두 곳의 자립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역자를 포함 여덟 분이 생활한다. 한 분은 국적이 없고 몸도 많이 불편한 조선족 노인분인데 노숙하는 분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분이라 공동체에 모셨고 구성원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교회가 세운 노숙인과 실직자를 위해 세운 협동조합인 '단꿈공방'에서는 아홉 분이 행복하게 자립의 길을 가고 있다

2013년부터 '송파 3 모녀'와 같은 '경제적 위기 가

정'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 이전 쪽방 가정에게 보증금을 지원했던 연장선상이다. 쪽방 지원 가정을 포함하여 사십여 가정에게 보증금(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왔다. '경제적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통로로 '희망 나눔' 우체통을 교회 입구에 세웠다. '송파 3 모녀'와 같은 위기 가정이 편지를 넣어 도움을 요청하면 쌀 등 생필품을 교회가 긴급지원하고 관공서에 알려 복지적인 도움을 받게 한다. 최종적으로 '주거 위기 가정'의 경우 개인 부담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희망 나눔' 우체통은 전국의 교회에 60여 개가 세워졌다. 그러나 확장성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그 대안이 온라인상의 '희망 나눔' 우체통이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고 수차례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금년 초 시작될 것이다. 온라인상이라 범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시드머니'도 준비되어 있다. 교회 구성원은 주로 한 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사역을 통하여 회복된 분

들이다. 2001년 서울역 지하도에서 시작된 야외예배는 지금은 동자동 '새 꿈' 공원에서 드린다. 무료배식도 이어진다. 회복된 성도분들이 예배 준비와 배식 등 모든 사역을 섬긴다. 주일날은 노숙인들과 쪽방촌 분들에게 잔치날이다. 매주 목요일 노숙인들에게 이발을 해드리고 얼굴을 씻겨 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 드리며 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를 한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핫팩과 이불과 겨울옷도 나누어 드린다. 그분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주 금요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한다. 매주 수요일은 쪽방촌을 찾아 예배와 심방을 하고 필요를 살핀다.

2005년 쪽방촌 아이들의 눈물에서 시작된 '단꿈아동 사역'(지역아동 센터, 그룹 홈 등)은 힘겨운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2001년 말에 시작된 사역이 20년 쯤을 맞았지만 번듯한 자체 건물 하나가 없다. 교회 간판도 사역 간판도 없다. 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다 보니 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사람들이 남았고 세워졌다. 이 사역은 힘겨운 아동들에게, 버림 받은 사람들에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역이다. 또한 이 사역은 동역하는 교회들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다. 작고 연약한 사역들이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더 필요한 사역이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이전과 달라졌다. 대면 예배도 대면 봉사도 힘들어졌다. 사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부 봉사자들이 봉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헌금도 줄었다고 한다.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주님의 길을 보아야 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예배가 달라졌다. 모이는 예배가 찾아가는 예배로, 나눔의 예배로 바뀌었다. 힘겨운 이웃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낮은 곳을 찾아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나눔의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외부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금은 세워진 교인들과 쪽방촌 분

들이 부족함 없이 채우고 있다. 낮은 곳을 바라보니 후원은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역도 훨씬 많아졌다.

'코로나 19' 초창기에 쪽방촌에 1000여 개의 스프레이 소독제를 나누어주고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쌀과 라면을 나누어주며 방제와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은혜로 구한 3000장을 나누어주고 최근에는 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10만 개를 나누어줄 수 있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목적 헌금을 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고아원 퇴소 후 버려진 청년들을 위한 숙소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에 200만 원을 보냈다. 중보 기도로 동역만 하던 10여 명의 선교사님에게도 선교헌금을 보냈다.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힘겨운 이웃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 그것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의 출발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로소 교회들이 서야 할 자리를 구체적으로 보게 하신 것 같다. 바로 낮은 곳이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다. 고통 받는 이웃들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교회,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신다(사 58장).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아 이웃과 선교를 위하여 내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생기기를 소망한다.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교회에도 적용된다. 지금이 그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용삼

서울역 쪽방촌을 섬기는 '소망을찾는이교회' 담임목사이자 '단꿈협동조합' 섬김이이다. 장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난과 절망과 죄악을 끊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단꿈을 꾸는 사람이다.

# 비대면의 임시 숙소에서

윤성현 (런던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교육은 늘 우선순위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곳입니다.”(My priority, our priority, remains keeping people in education... school is the best place for children to be). 지난 11월, ‘코로나19’ 관련 2차 ‘락다운’(Lockdown)을 앞두고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Alexander Boris de Pfeffel Johnson)이 한 말이다. 1차 ‘락다운’ 때는 학교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었지만, 2차 ‘락다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물론 아이들의 교육권을 어른들의 생명권과 맞바꾸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여하튼 우리 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학기를 꼬박 등교했다. 한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내세우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기에 존슨의 말을 언급했다. 여러 말 필요 없이 이 말에서 영국 사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한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임

이다. 다만 한국 사회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것은, 지금의 교회가 모임에 힘쓰는 만큼이나 세상의 소금으로 잘 흩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상 이는 한국 교회의 과제이지 모든 교회의 과제인 것은 아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르다. 여전히 모이려고 애쓴다. 일단 모여야 흩어지기라도 해볼 것 아닌가? ‘말씀 선포’(케리그마), ‘섬김’(디아코니아), ‘친교’(코이노니아) 이 모두는 모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모임에 있다면, 성도들이 있어야 할 가장 좋은 모임의 형태는 온라인인가 아니면 현장인가? 적어도 ‘코로나 19’ 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였다. 게다가 일부 신학자들은 온라인 공동체를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불편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해갈해 주었다. 경쟁하듯 교단 차원의 온라인 교회 개척 훈련이 생겨나고, 교회의 존재 형태에 관한 담론은 축소된 채 온라인 모임을 전제로 그 부족함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들이 우후죽

순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전 ‘텔레비전 사역자’(televangelist)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물론 매체가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기에 이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장려한 ‘교육방송’(EBS)이 사교육 시장을 대체한 적이 없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한 적이 없듯, 온라인 교회는 현장 모임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대면 모임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성탄절은 불효자도 부모를 찾아뵙는 날이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성탄 연휴 5일 만이라도 봉쇄조치를 일시 해제하려는 무리수를 뒀던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 비록 런던 지역은 급격한 상황의 악화로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의도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직접 대면하는 만남을 온라인이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대상이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대면’하여 모일 때 힘이 생긴다. 학생은 학교에서 지식만이 아니라 우정을 쌓는다. 그 사랑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1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고시생의 공부이지 아이들의 우정이 아니다. 군대에서 애인과 매일 전화하던(합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겠는가!) 병사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접 대면할 고작 몇 시간의 면회이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을 온라인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성도의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화 있을진저! 성령으로 한 몸 된 자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의 반증이다.

바울은 도망친 중,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인 빌레몬에게 쓰며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심지어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몬 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대면하고 싶어 숙소 마련

을 부탁한다(몬 1:22). 소위 온라인으로도 자기 부하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 번’ 대면을 시도하였다(롬 1장).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리두기를 지켜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른다(눅 17:12). 백부장의 부하를 고친 방식대로, 예수는 이번에도 거리두기로 진단만 하신 뒤 원거리 온라인으로 고치신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짐을 받는다(눅 17:14). 그중 한 사람이 굳이 대면하여 감사를 표하자, 도리어 예수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눅 17:17)며 찾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Visio Dei)임을 깨닫는다.

비상시국이다. 마을에 홍수가 나서 체육관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임시 숙소를 내 방처럼 안락하게 꾸미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물난리 난 집으로 돌아가 그곳을 복구시키는 데 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랑하는 자매, 형제를 대면하여 모이는 날을 꿈꾸어야 한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모임에 있고, 그 모임의 가장 좋은 형태는 비대면의 온라인 세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윤성현

런던갈보리교회 담임이다.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번역서로 <UBC 이사야>, <아담, 타락, 원죄>, <그리스도와 권세들>,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등이 있다.

## ‘코로나 19’ 시대, 교회의 존재를 묻다

###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목사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 19’ 시대 한복판에서, 비대면의 일상화라는 새 상황에 도전받고 있다. “과연 교회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묻고 답을 구하려는 목마름 역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목사이자 미래목회포럼 대표, 교회갱신협의회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계신 오정호 목사님(동역회 이사)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말씀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일시** 2021년 1월 25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새로남교회 3층 접견실  
**인터뷰어** 박문식 (한남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정리 & 사진**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문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한결같은 새로남교회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동역과 목사님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코로나 19’로 상징되는 현재의 재난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오정호** 어려운 상황이고 해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개 양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거품을 빼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에 실(實)하고 어느 부분에 허(虛)했나? 예배적인 면이나 직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훈련의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교회 존재의 본질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재난의 시기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돕는 복지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사각지대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국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계속하게 됩니다.

**박문식**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지켜보실 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정호** IMF 때가 떠오릅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적 한파가 몰아쳤고, 많은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그러한 위기 앞에서 부부가 더 결속됩니다. “여보 이 난관을 헤쳐나갑시다.”라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가정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가정들

은 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결혼 제도로 세워진 가정들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오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큰 재난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국민 생명을 존중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계 차원에서 갖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1년 전 신천지를 통한 전국 확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우리 교계가 생명 존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이니 하는 우리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국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 빌미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교회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마치 기독교가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와 방송 보도를 보니까, ‘예배를 강행’, ‘교회발 감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몇 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예배를 통제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와중에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하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저는 나름의 귀한 가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현실은 본의 아니게 기독교 내에서 목사들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이 많은 구조로 고착화 되어간다는 아픈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표성을 갖는 우리 기독교 연합 단체들이 선제적 대응을 지혜롭게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문식** 목사님, 그렇다면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이 위기에서 기회의 요소를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정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은 목양의 본질이 무엇인지 각자 성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즉 ‘제자도’ 실현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대화’는 중요한데, 지금까지 잘해온 가정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대화가 어색한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게임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따로 논단 말이죠. 이때 가족 구성원의 대인관계 실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오히려 요즘이 가족 사이에서 성경적 본질을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Divine Institute)이 아닙니까?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 가족 구성원으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잘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제자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친밀감이란지 동지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결속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박문식** 새로남교회는 특별히 ‘새로남 카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매년 1억 이상 기부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정호** 새로남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새로남 카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2020년 총액이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부

터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오직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과 나누겠다는 따뜻한 원칙을 세웠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세세한 기부 항목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첫째 2007년에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봉사 경비, 복지관 지원, 북한 결핵 환자 돕기 등에 썼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국내외의 사고·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여러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2008년 중국 지진·미얀마 태풍, 2010년 아이티·파테말라 지진 구호금, 2012년 삼척 가스 폭발 사고 구호금, 2013년 시리아 난민 구호금, 2015년 네팔 지진 구호금 등도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계속 후원하고 있는 ‘북한 결핵 환자 치료비’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총액 4억 원).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총액 3억 원) 외에도 6·25 참전용사 초청 감사와 격려 행사비, 대전시를 통한 사랑의 열매 불우이웃 성금 등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남교회 사회 후원이 ‘새로남 카페’ 수익금으로만 이어온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만 보더라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곳을 교회가 직접 섬겼는데요. 대구, 경북지역 100개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1억, 5월엔 대전 시민을 위해 부활절 헌금으로 2억, 8월엔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1억, 농어촌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0만 원 등을 기부했습니다. 민족복음화에 계속 헌신해온 선교단체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언어로 외치는 복음만 전하는 곳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박문식** 새로남교회는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이 있고요. 특별히 ‘새로남 기독교학교’라는 초, 중등학교를 세워서 공

교육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비전과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정호** 새로남교회가 학교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절박함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은혜를 주셨어요. 헌당식을 하고 나서, 다음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95% 이상 압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아이 하나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주일에 30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섬기면 제대로 다음 세대를 예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인격이 다 자라기 전 시기의 영혼을 섬기는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도 회심을 아주 어릴 때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진리의 장막이 나이 들어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위에 가정, 교회, 학교가 하나 된 통합교육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섬김의 리더를 세운다는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다음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직접 생각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건고한 영성’(Sound Spirituality), 둘째, ‘기독교의 인성’(Christlike Character), 셋째, ‘뛰어난 지성’(Distinguished Intelligence), 넷째, ‘국제적 역량’(Global Competence), 다섯째, ‘섬김의 지도력’(Servant Leadership). 이 기초 위에서 어느덧 중학교 과정까지 2회 졸업생들을 배출했어요. 현재 초등학교 404명, 중등학교 199명, 모두 603명의 학생들과 풀타임 교직원 8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평생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남 기독교학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나를 '새로남 기독교학교'에 보내 준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을 섬기는 리더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박문식** 새로남교회는 대전시 전체에서 청년 대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정호** 저는 서울 내수동교회에서 청년 부흥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애잔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또 옥한흠 목사님께서 저를 통하여 사랑의교회 대학부 기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1월 6일, 새로남교회 부임부터, "주여 천천 만만의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로남교회 대학 청년부는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우리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평생 멘토를 만나면 좋겠다. 둘째, 평생 동역자(친구, 결혼)를 사귀면 좋겠다. 셋째, 평생 경건습관의 체질화입니다. 장로님, 성도님들께는 우리가 청년들 앞에서 결코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기성세대가 싸우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친권에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만, 일단 대학 들어가면 대개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좋은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살리려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저녁 예배까지 강조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청년의 때 몸에 밴 것이 그 영혼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청년들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대부분 떠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떠납니다. 지방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런던이든, 뉴욕이든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지역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장로가 되고, 핵심 멤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고 축하하는 꿈을 꾸고 삽니다.

**박문식**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사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당부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정호**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상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되, 그냥 취미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죽기 살기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가 유행시킨 '팬덤'이라는 말이 있지요. 전에 보니까 일본 자매들, 아주머니들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온 이유가 온사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는 충분히 더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 파스칼이 <팡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한 번 씨름해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더 치열하게 주님을 따르자!" 이것을 꼭 제안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나누자면, 새로남교회에는 3월 첫 주에 캠퍼스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다 강단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저와 함께 고마움을 담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때문에, 담임목사나 장로님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젊은이로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성세대는 정말 여러분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고, 역할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차렷!" 하고 전부 인사를 한 번 더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FAITH & LIFE**

## ‘신앙과 학문’의 통합, 그 씨름의 여정

양성만 (우석대 교양학부 철학 교수)

내가 처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시절부터였으니 다른 회원들보다는 일찍 시작한 셈이다. 1980년대 초, 서울에는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연구 모임이 서너 개 있었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모임 배경에는 미국 평신도 선교사 원이삼(Wesley Wentworth) 선생님이 있었다. 당시 모임은 소박했다. 모임 장소로는 아현동 IVP 사무실이 많이 이용되었고 교회 교육관이나 개인 집이 이용되기도 했다. 대학원생들, 학부 졸업생들이 주로 모였지만, 때때로 교수님들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현재 그 중의 어떤 분은 이미 세상을 뜬 분도 있고 소식이 끊어진 분도 있지만, 여전히 ‘동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도 있다.

각 연구 모임이 따로 모이기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집담회를 하기로 하고 몇 분이 원고를 준비해서 발표하며 늦은 밤까지 토론하기 시작한 것이 1984년 여름이었다. 그 후로 여러 모임이 결성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갔다. 당시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분은 김현수 목사님(현재 독립개신교회 신학교 교장)이었고, 나도 옆에서 같이 도우며 간사 일을 했었다. 그렇지만 기독교학문의 방향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당시 고민은 필자가 번역한 <창조·타락·구속>(IVP, 1995)의 역자 글에 아래와 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가 이 책의 원서 *Creation Regained*를 처음 접한 것은 기독교적 학문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학문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이 기독교적이며, 그리스도인이 학문을 연구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는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는 문제였다. 상황을 그렇게 인식한 당시의 과학 연구 모임 참석자들은 먼저 기독교적 학문을 위한 어떤 ‘기초’를 다져야 하겠다는 데 동의했고, 그래서 원이삼(Wesley Wentworth)에게 소개받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연구 및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청년들이 주축이었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어떻게 현재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결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는 우리 ‘동역회’ 연혁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단체의 출범에 내가 참여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단체는 ‘기독교철학회’이다. 때는 1998년 봄이거나 그 이전일 것이다. 그때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청년’(YB)들과 ‘장년’(OB)들이 서로 합쳐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관을 제정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학술단체로 출발한 지 수년이 지난 때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철학자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도 ‘기독교철학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나에게 “날짜를 정해

서 한 번 모이자고 제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홀연히 났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편지를 드려 ‘기독교 철학회’를 창립하려고 하니 아무 날 어디에 모이자고 공지를 했다.(순전히 기억에 의존한 기술이라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였던 분들이 ‘기독교 철학회’ 창립을 하였다. 당시 작성한 회원 명단에는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 김영한 교수님, 강영안 교수님, 신국원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최태연 교수님, 하종호 교수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기독교 철학회’는 매년 학회를 열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 내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어떻게 추구해 왔는지, 어떤 점들을 고민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이다. 구원이란 죄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 나라 백성의 삶이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 일의 일차적인 현장은 교회이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분열이 발생하고 그뿐 아니라 팬데믹으로 예배와 성찬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재림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동안 진리, 논리, 감정 등 몇 주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논문을 써 보았다. 쉽지 않은 작업임을 매번 발견한다. 기독교적인 연구임을 자임하려면 말씀의 빛이 거기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훈을 잘 알아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 관련시켜야 하기에, 성경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성경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성경 지식은 객관성을 가져야 한

다. 성경의 가르침이 내 개인적인 삶에 국한된 것이라면 객관적 논증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나의 철학적 주장이 철학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도 학문적 논의에 가져올 때는 신학의 언어로 표현되어 합리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89-1951)을 연구하여 석사와 박사 논문을 썼다. 비트겐슈타인은 학문적으로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허세가 없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의 삶을 모범으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철학자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이어나가지 못했다. 최근 한 신학교에서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맡으면서 비트겐슈타인의 중요성과 기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현대 해석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성경해석학자들에 의해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일반 은혜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방 사립대의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충실히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을 돌보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 내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지나는 동안 어느덧 정년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왔다. 연구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학회나 ‘동역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다 하려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교양학부 철학 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 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로는 〈창조, 타락, 구속〉(IVP),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 ‘물음표’로의 초대

백승찬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얼마 전 교내 그리스도인 대학원생 모임에서 주최한 그리스도인 교수님과의 만남 행사에 참여했었다. 질의문답 시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드렸다. “교수님은 어떻게 대학원 전공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셨어요?” 답변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다. 답변을 듣고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를 생각했다. 교수님 말씀이 내게도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잘 몰랐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선교 단체 소속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충만했던 학부 기간을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하니 무거운 물음표를 맞닥뜨린 기분이었다. 학부 때까지 내가 생각하던 이른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학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 일의 사명도 주신다고 했는데, 주어진 일상 안에서 연구도 충실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충분히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 “연구실 동기들은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연구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친구보다 연구를 잘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삶일까? 일은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데, 내가 말씀 보는데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일까?” 하는 고민으로 갈팡질팡했다.

물음표의 행진은 교회 안에서도 이어졌다. 학부 때는 캠퍼스 선교 단체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비슷한 신앙의 모습과 색깔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지냈는데, 대학원에 오면서 교내 대학교회로 예배처를 옮기고 나니, 여러 가지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모임 시간에는 말씀 중심으로 보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려고만 하고 수다만 떨려 하지?”, “모임은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하는데 세상 노래가 나오는 카페에서 해도 되는 걸까?” 등의 생각으로 마음 한편이 불편할 때가 많았다. 그 때문에 교회 리더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냐”라고 따지고 어떤 날은 교내 수요 채플에 참여했다가 메신저의 설교를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어서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내가 맞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연구실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불신자 선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연구의 오랜 슬럼프를 겪으면서 “내가 좋은 신앙인 되려고 말씀 보고 좋은 사회인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배웠다. 교회에서



도 카페에 가고, 계곡에 가서 놀고, 제주도도 놀러 가고, 이렇게 열심히 노는 와중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신앙이라는 게 주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시간들 모두가 주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과정,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 19’ 사태가 찾아오자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교회와 예배의 모습도 불가피하게 달라졌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 교회 소모임에서 기타 치며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면 다시 저런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대를 해석하는 다양한 생각들은 내게 아직 혼란스럽다. 어떤 이는 ‘코로나 19’ 사태를 교회의 본질인 ‘함께 함을 방해하는 마귀의 시험’으로 보거나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을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본다. 어떤 이는 ‘코로나 19’ 사태를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주가는 매일 최대치를 경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몇 주 만에 몇억씩 오르는 집값 앞에서 “내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

‘코로나 19’ 사태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답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 다만 주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드릴 뿐이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각자 앞에 던져진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의 뜻이 이뤄진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늘 물음표로 초대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크심을 서서히 드러내시는 것은 아닐까 한다.

7년 전 캠퍼스에서 석종준 목사님을 통해 처음 창조론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생명과학부 학부생으로서 우연히 그 모임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참석했었다. 그때는 생물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7년을 더 공부한 지금도 더 알게 된 것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답 찾기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모든 답을 당장 알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이미 존재하게 하신 생명을 정하신 때를 따라 그저 조금씩 알아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조금씩 날마다 더 알아가며 찬송하며 살기 원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백승찬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 경남 산청에서 목사 아들로 나고 자랐다.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졸업했다. 학부 때 선교단체(U.B.F)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자연과학대학 기독교인 연합 대표로 섬겼다. 서울대학교회 교인이다.

## 영적 예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정문선 (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2020년 3월 말,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이방인으로 외국에서, 4월부터 12월까지의 모국에서 ‘코로나 19’와 함께했다. 특히 처음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한은 내가 몇 년 전에 거주했던 지역이다. ‘코로나 19’는 동떨어진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친구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삶이었고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건강의 위협, 고용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우리 가정은 ‘실직’ 상태였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어떤 ‘스펙’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밥과 봉사’였다. “지금 돈을 받고 일할 곳은 없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기도의 결과였다. 하얀 비닐봉지에 주먹밥 두덩이, 삶은 계란 두 개, 음료수 한 개씩을 넣은 키트가 제공되었다. 주먹밥 한 덩이는 점심이고, 나머지는 저녁이었다. 정해진 시간까지 배식을 마치고, 몇 분이 더 줄 수 없느냐고 찾아오셨다. 드릴 게 없다는 말에 “이거 하나로는 모자라. 배고프단 말이야!”라고 외치던 분의 절규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다니. 그것도 우리 가까이에!” 나는 그동안 하

나님께서 공급해주셨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주기도문을 살아있는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다.

실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나를 불러준 곳은 유명 물류센터, 소위 택배로 불리는 새벽 일자리였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 그 현장에 있었다. 일 시작 전,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른 아침, 제 삼시, 육시, 구시, 그리고 마지막 제 십일 시까지 일이 없어 서성이던 사람을 불러 일하게 하고 동일한 임금을 준 좋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마 20장).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나는 ‘천국’을 떠올렸고, 마지막에 들어간 품꾼 같은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물량이 늘어난 택배는 노동 강도가 정말 높았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직접 고용이 아닌 파견업이라는 고용 형태, 최저임금 문제, 택배로 보낼 수 있는 물건의 무게 제한 등과 관련된 물음이 생겼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단 하루만 일해 본다면, 이런 처우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들었다. 그 시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나

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사 61:1).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나와 동일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팬데믹 시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대체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가 왜 이런 시선을 받게 되었을까? 언론의 기울어진 시선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때인 것 같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마 5:13).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행 5: 13)고 한다. 로마 시대 안토니우스 역병이 돌던 시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듯, 아픈 이웃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가족들도 병자를 내다 버리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감동을 받았다(롬 15: 2).

‘코로나 19’는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뜻에 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 말이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초기에도 그러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은 지체가 되는 한 몸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요일 2: 3-6). 각자 있는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롬 12:1-2), 이것이 ‘코로나 19’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아닐까? **FAITH & LIFE**



 글쓴이 정문선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사교육혁신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고 ‘교육목적론’,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관심이 있다. 교회는 중국 ‘우한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며, ‘성균관대 유학생 교회’를 섬기고 있다.

## ‘코로나 19’와 예배의 모습

양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법무팀장)

나는 변호사이지만 공무원이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한다. 매일 저녁 뉴스에서는 ‘코로나 19’ 소식과 관련해서 ‘질병통합관리본부’가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더 최전방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코로나 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역학 조사하여 접촉자를 분류하고, 자가격리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 모두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흔히 ‘구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일터에서 ‘코로나 19’ 관련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관리하고 있기에 일반 변호사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점검하는 현장에 함께 하면서,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있었다. ‘코로나 19’ 사태는 각 교회의 예배 방식을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주일마다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 있는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이다. 이에 따르

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또는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해당 조치 중 하나는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명령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즉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한 장소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우려하여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한 장소에 모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어느 주일 아침, 업무차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서를 들고 교회들에 행정지도를 나가고 있었다. 대다수 교회들은 감사하게도 해당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렸다. 주택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교회였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십 명의 성도가 뻗곡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1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명령서를 보여드리며 2부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말씀드렸다. 하지만 교회 측에서 거절했고, 2부 예배가 그대로 강행되었다. 결국 해당 장소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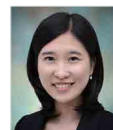


다. 3부 예배까지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을 직접 뵈고 상황 설명을 드렸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예배는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고, 현장 예배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는 목사님의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알 수 있었기에 더 이상의 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을 겨우 설득한 후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온라인 예배는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포기한 것인가? ‘코로나 19’ 시대의 교회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코로나 19’ 이후 교회의 모습은 예전과 동일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드린 주일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소개해 주셨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권면하였다고 한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았다. “예수

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1, 24). 이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특정한 장소와 방식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기보다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교회가 먼저 이웃을 걱정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제대로 실천하였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서를 들고 하루 종일 교회를 돌아다녀야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일었다.

요즘 주일예배 영상 안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며, ‘코로나 19’ 시대 이후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교회당 중심만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교회 건물은 더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놀이터,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장소 등으로 내어주어, 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장소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FAITH & LIFE**



글쓴이 양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법무팀장(변호사)이다.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독교법률가회’(CLF) 소속이다. 연희교회 서리집사이며 육아휴직 중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꿈꾼다.

## 기독교 '교사'가 아닌 '기독교 교사'의 삶

이지영 (높은뜻씨앗스쿨 사회교사)

25살이 되던 해 모태 신앙이었던 나는,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부끄럽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후, 잘못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 길을 묻고 또 물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겔3:5)” 성경 묵상 중에 에스겔 3장 전체를 사명의 말씀으로 주시며 기독교 교사로서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진정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적다.”고 말씀해주시며, 기독교 학교로 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다. 기쁨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을 별무리학교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김동호 목사님이 세우신 높은뜻씨앗스쿨에서 중등 사회교사로 섬기고 있다. 높은뜻씨앗스쿨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위에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을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올 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들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업을 했기에, 마

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볼 수 없어 답답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는데, 영상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수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생활 패턴이 깨져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속상했다.

한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며, 아이들의 영육 간 강건함을 돕는 자로서 내 마음엔 빨간 경고등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더불어 모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아이들 중에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불편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권면하며 도와야 함을 기도하며 전했다.

다행히 5월부터 등교수업이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두 눈을 보며 말씀도 나누고 수업할 수 있었기에 정말로 기뻐다. 하지만 ‘코로나 19’를 비롯하여 기독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높은뜻씨앗스쿨에서의 모든 교과 수업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과 내용을 성찰한 뒤에 아이들과 진행된다. 그 중 ‘융합프로젝트’ 수업은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을 융합하며 아이들과 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수업이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19’였다. 기독교사로서, 기독교 학생으로서 ‘코로나 19’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했다. 또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자료들을 준비해 각 전문 영역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을 분석했고, ‘코로나 19’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인(높은뜻)을 보았는지 연구한 것을 나누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2)”**

8학년 학생들은 7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로 부패하고 가려졌던 인간의 패역함이 드러나면서 세상은 혼돈을 겪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드러났기에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백하며 방법을 찾았다.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표하는 그 모습이 참 귀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입술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귀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119:18)”**

‘기독교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높은뜻씨앗스

쿨 장슬기 선생님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시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 각 영역의 전문가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해주셨다. 이 말을 듣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기독교 학교가 사역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것과 다른 세계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 곧 참 진리라는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최근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관 충돌>이란 책으로 북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깨어있는 분들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세대가 아닌 말씀으로 믿는 세대가 되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 분별력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한다. 오늘도 그 세대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지영



높은뜻씨앗스쿨 중등과정 사회 교사이다. 숙명여대에서 교육학·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나님의 높은뜻’(God’s will)으로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기독교 교사이다. 현재 기독교 교사로서 지녀야 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기 위해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연구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불타는 어머니 교회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



<로마서 8:37>  
2017, 신연식 감독

### 불편함

영화 <로마서 8:37>은 불편하다. 해당 성경 구절은 이렇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만으로는 결코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타이틀로 한 영화는 보는 내내 불편하다. 어떤 영화든지 관객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제작되지는 않는다. 불편함도 영화의 기법이며 메시지이다. 그 불편함으로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 소명과 욕망

안기섭 전도사(이현호 扮)는 부순 교회 간사로 일한다. 담임목사 강요섭(서동갑 扮)을 돕는다는 책임감이 소명으로 가득 차 있다. 전도사는 직분상 강 목사에 대해 절대 순종한다. 교회는 담임목사와 은퇴 목사 사이에 갈등으로 분쟁 중이어서 이상한 소문들이 교

회를 어지럽게 했다. 그러던 중 강 목사에 대해 제보가 들어온다. 청년부 출신으로 이뤄진 간사들은 의혹을 품으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진상 파악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보는 사실이였다. 강 목사가 그동안 저지른 죄악상이 드러난 것이다. 안 전도사는 혼란스러워진다.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도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던 말인가. 소명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 속죄의 죽음

얼마 전 강 목사의 동생이 화상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안 전도사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왜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가 죽어야 했는지. 인간의 죄가 사람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소명을 받은 목회자마저 타락시킬 수 있는지. 제보를 확인해 가면서 간사들은 진실을 알게 된다. 피해자들이 겪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교회 울타리에서 일어났었다니.

강 목사의 아내는 처절하게 몸서리치다 시동생을 찾아가 진상을 알린다. 그리고 아내는 장애인 시동생에게 “당신이 형을 위해 기도해 줄 마지막 사람이다”라며 말하곤 목숨을 끊는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목사인 형의 죄악을 알게 된 동생은 자신이 져값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움막을 짓고 기도한다. 면피해보려는 형을 대신하여 처절한 속죄의 기도를 한다. 움막이 불에 타오르는지도 모르고 기도에 빠져든다.



### 그리스도인들의 함정

강 목사의 성추문이 밝혀지자 노회가 징계위원회를 꾸렸다.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을 표명했으나 번복한다. 반대편의 은퇴 목사와 무언가 협약이 있었다. 강 목사는 교회 부설 센터 책임자로 다시 부임하는 수순을 밟는다. 안 전도사는 더 참을 수 없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는가.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 받은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 착각은 아닌가. 가해자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람하다. 여기서 감독의 변을 들어보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논리이다. 강 목사도 죄를 반성하고 인정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젊은 간사들의 신앙 자세였다. 믿음은 형이상학적 논리로 이뤄져 있지 않다.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는 실제 삶이어야 한다. 은혜에 길들여지면 바리새인 신앙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전도사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처절하게 부르짖는다.

### 교회는 변함없는 어머니 품

부순 교회는 우리 시대의 여러 교회처럼 은퇴 목사와 위임 목사 사이에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위

임 목사인 강 목사의 은밀한 죄악 같은 범행 또한 우리 시대에 미디어가 고발하고는 했다. 피해자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죄인에 대한 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현대판 교회 정치의 어두운 풍경이다. 분쟁으로, 목사의 성추행으로, 노회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현대 기독교는 사회의 비판 앞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안 전도사와 청년들처럼 깨어있는 교인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는다. 영화는 말하기에 불편한 모습을 담는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교회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는다. 불편함을 솔직히 끌어안는 행위는 회개와 회복의 출발이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예수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영원하다. 세상은 환란과 풍파로 흔들릴지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거기에 있다. 죄인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한 불에 죄를 태우고 거듭날 때 교회는 새로워진다. 교회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자식처럼 품에 안고 젖 먹이며 양육하는 사랑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성도들을 감싸 안는다. 그리하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한다. 지금은 세상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끝내는 불타는 사랑으로 이기게 한다. 이 산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 .

### FAITH & LIFE



### 글쓴이 추태화



안양대 신학과 기독교문화학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화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화가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보았을까?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미술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 주제가 미술사에 등장한 것은 11세기경으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오토 3세(Otto III)의 복음서로 알려진 아름다운 수기(手記) 성경에 채색 삽화로 나타난다. 그림에선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구타와 절름을 당하는 등 곤경을 겪는 순간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묘출하고 있다.



오토 3세의 복음서, 1000년대경

다른 하나는 프랑스 북부의 생 베르탱(St. Bertin) 수도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 성경에 등장한다. 그림은 무차별하게 공격을 받는 여행자, 주위를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에 태워 여인숙으로 향하는 사마리아인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보여준다. 초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체 이야기를 도해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이후의 그림은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는 종래의 방

식과 달리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부상당한 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요한 칼 로쓰(Johan Carl Loth)는 사마리아인의 선량한 행동에 주안점을 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상해를 입은 여행자를 발견하고는 즉시 자신의 말에서 내려 치료를 해주고 있다. 사마리아인은 성경의 기록대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반면 여행자는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로쓰는 사마리아인과 피해자를 화면 중심에 비중 있게 위치시킴으로써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였다. 조지 와트(George F. Watts)는 ‘옷을 벗기고 때려 거만 죽은’(눅 10:30) 여행자를 말에 태우기 직전의 모습을 화면에 옮겼다. 피해자는 혼미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자 사마리아인은 한쪽 다리로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였다. 장 프랑수와 밀레(Jean François Millet, 1846년 작)의 작품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축 늘어진 여행자를 도와주는 순간을 재현하였다.

이 작품은 신고전적인 인물화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프랑수와 밀레, 선한 사마리아인, 1846

박진감 넘치게 그려냈다. 밀레는 거장답게 의식을 잃은 여행자를 부축하며 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감동을 전달한다.

막스 리버만(Max Liebermann, 1911년 작)의 작품은 그림의 배경을 우리의 일상 공간으로 바꾸어놓았다. 그림의 배경이 된 곳은 2천 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독일의 한적한 농촌이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농부와 그 옆의 아내가 여행자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농부는 밭일을 하다 강도의 공격을 받은 여행자를 발견하였고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아내에게 급히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초점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맞춘 화가들도 있다. 헴스케르크(Heemskerck)의 판화가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여행자를 외면한 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각 성경책과 율법판을 들고 어디론가 바빠 가고 있다.



Heemskerck, 선한 사마리아인, 16세기

그들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볼 뿐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얀 롬보트(Jan Rombouts), 구스타브 재거(Gustav Jaeger), 존 런시맨(John Runciman)도 이와 유사한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는 인물들을 통해 종교적 열심이 실제로는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상당히 많이’ 살해하였다고 기록했다.(Antiquities 20.118-136). 그렇다면 여행자가 도적을 만난 곳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장소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었을 법한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칭찬하셨다. 이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궁핍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만약 우리가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이라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분별해내는 데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그림들을 통해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도 재난의 시대에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도록 부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상,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 '코로나 19' 속에서 교회를 돌아보다

안명준 (평택대 피어선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첫째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17명 국내 신학자의 성찰과 지혜를 모은 책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오늘날 세계를 공포로 몰아세우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천지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 12월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모든 집회가 중지되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재난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염시킬지가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들은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흑사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조명하고 최근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신학과 의학의 입장을 소개한다. 전염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신학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전염병을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교회 역사에서 본 전염병과 기독교의 관계를 소개한다. 주로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와 대응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부에서는 전염병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좀 더 오늘날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와 신앙 생활 그리고 사회와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책으로부터 교회 역사 속의 전염병에 대하여 성경적, 신학적 통찰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많은 경우 전염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다. 즉 전염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과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의미를 준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든 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이해의 지혜를 전한다. 또한 이 비상 상태 속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안내해 주고 있다.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자유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세계관에 대해 안내할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재난에 대한 바른 신학적 대처를 안내하고 있다. 재난이 왔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권한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는 불안과 혼동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참된 예배의 정신의 중요성을 잃지 않게 하며,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로, <교회 통찰>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국내 그리스도인 지성 46명의 성찰과 지혜를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안명준 외 / 다함 / 2020  
 〈교회통찰: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안명준 외 / 세움북스 / 2020



모든 책이다. 또 필자들이 교수, 신학자, 의사, 목회자, 선교사로서 모두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집필한 결과물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공격하며, 모든 인류 공동체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예외 없이 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침투로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마치 중세와 종교개혁기의 흑사병과 같은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코로나 19’ 시대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진단한다. 2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3부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 과거 신학자들의 이해를 거울삼아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을 제안하고 있다. 4부는 어려운 한국 교회에서 미래를 찾아보는 내용이다. 5부는 목회와 선교 분야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6부는 경제, 과학, 건강, 기술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실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전염병을 만난 한국 교회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며, 한국 교회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과 참된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며, 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 있다. 또한 이 위기의 시대에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지혜를 찾으며, ‘코로나 19’ 이후 한국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목회, 교육, 선교, 이단,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의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어려운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와 예배의 본질, 종교의 자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안내서로 추천을 드린다.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대에 놓인 한국 교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피워보기 위하여 땀을 흘렸다는 것도 이 책이 지니는 큰 의미로 삼을 수가 있겠다. FAITH & LIFE



 글쓴이 안명준

평택대 피어선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다. 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 후, 미국 리폼드신학교(Th.M.), 웨스트민스터신학교(Th.M.)와 남아공 프리토리아대학교에서 칼뱅의 해석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조직신학연구 편집위원장, 칼뱅 탄생 500주년기념사업회 실행위원장, 한국개혁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으로 신학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한 책들을 편찬하고 있다.

## ‘코로나 19’와 목회적, 교육적 성찰

신형섭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코로나 19’ 사태 앞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러한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으며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코로나 19’ 사태 안에서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되심’만을 주목하며 목회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고 있는 사역자들의 성찰을 담은 글이다. 즉 장신대 출판부는 먼저 <재난과 교회>라는 큰 제목 아래, ‘신학적 성찰’라는 주제로 신학자들의 지혜를 모아 묶은 첫 번째 책을 발간했었다. 그리고 이제 1부 ‘목회적 성찰’과 2부 ‘교육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현장 사역자들의 지혜를 모아 묶은 <재난과 교회> 두 번째 책을 다시 발간했다.

1부 ‘목회적 성찰’에서 송용원 목사(은혜와 선물교회)는 ‘함께 있었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야 할 때를 기약하는 교회여야 함을 강조한다. 박혜원 목사(자유로운교회)는 제3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며 현대 정신의 회복을 제안하였고,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온혜교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낮은 자리에서 협력하고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이상록 목사(창동염광교회)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점·선·면 차원의 전략을 통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경환 목사(나들이데이케어센터)는 원천세, 임차료, 사회보험, 직

원 급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곧 삶을 정리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존재가 더 밝고 또렷하게 눈에 들어옴을 고백한다. 이석영 목사(경신중고 교목)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사랑, 용서, 희생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고, 김정태 대표(좋은교사운동)는 멈춰버린 학교 현장에서 타인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 고은식 목사(브리지임팩트사역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최태양 목사(해군 군목)는 재난 가운데서도 헌신과 사랑의 행동이 필요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신앙적,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현 목사(필름포럼대표)는 전대미문의 이 상황을 사역의 본질과 방향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길을 찾는 물음의 시간으로 삼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재운 목사(주님의숲교회)는 무례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며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소운 대표(다큐제작자)는 기적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일상에서 흘린 땀방울 속에서 잉태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홍성호 본부장(월드비전)은 보호막 없는 취약계층의 가정들에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주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

〈재난과 교회: 코로나 19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 교육적 성찰〉 송응원 외 / 장신대 출판부 / 2020



다. 유미호 대표(기독교환경교육센터)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지구가 아프게 된 이유와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도현명 대표(임팩트스퀘어)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이후에 어떤 삶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타적인 연대와 협력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2부 ‘교육적 성찰’에서 고원석 교수(장신대 성서교수학)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교회는 거룩한 전이의 공간으로서 거룩한 공간 회복과 모임, 성경적 예배 정신과 거룩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 준다. 권대현 목사(광주제일교회)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적 대안으로서 교회 교육으로부터 가정교육으로의 주도권 전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로의 교육 방법 모색, 시대에 응답하는 성숙한 교육목표로의 변화를 제안한다. 백성우 목사(영락교회 교육부)는 ‘코로나 19’ 사태 앞에서 재발견하게 된 목적, 즉 교육 목적을 통해 회중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서며,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철저히 세워 가야 함을 강조한다. 노진아 목사(충신교회 유치부)는 ‘코로나 19’ 사태 안에서 부모는 더욱 가정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박신애 목사(높은뜻우신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온라인 예배의 상황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롭게 느끼고 실천해야 할 목록들을 제시한다. 강희성 전도사(무학교

회 중등부)는 청소년들의 삶에 생긴 변화와 이에 대한 목회적인 응답으로서의 고민과 실천에 대하여 나눈다. 조인재 목사(동부광성교회 청년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통하여 더욱 깊어진 현실적 위기와 갈등 앞에 선 청년들에게 교회가 더 다가가며 실천해야 할 배려가 있음을 강조한다. 최세나 목사(뉴저지초대교회)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택 대기의 강제 집행 명령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리스도인 부모의 신앙사명인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 명령을 강조한다.

‘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새해에는 봄의 새싹이 힘 있게 나오듯, 말씀과 분별과 실천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는다. 바라기는 이 책의 성찰과 지혜의 나눔이 한국 교회와 성도님에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인식하여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초대와 동행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형섭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며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원장이다. 미국 Union Presbyterian Seminary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저서로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 〈예배를 디자인하라〉, 〈가정예배 건축학〉,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다〉 외 다수가 있다.

## ‘코로나 19’ 시대의 캠퍼스와 청년 사역

배석현 (장석교회 청년부 담당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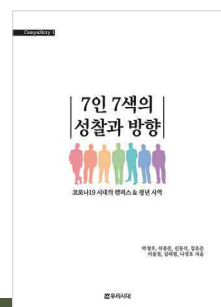
〈7인 7색의 성찰의 방향〉은 현재 대학 캠퍼스와 지역 교회 현장에서 청년 사역을 섬기고 있는 7명의 메시지 모음이다. 또 이 책은 2020년 가을, 광운대학교 주요 채플에서 ‘코로나 19 시대의 청년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시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코로나 19’ 시대의 현상과 문제를 총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2부는 ‘코로나 19’ 시대를 극복해나갈 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1부에서 박정우 목사(광운대 교목)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공동체의 빅딜’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의미, 정부와 대학 당국의 반응,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체와 청년 공동체가 경험하는 현상을 정리했다. 석종준 목사(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의 ‘코로나 19 정국에서 캠퍼스 복음 사역의 의미와 방향’은 현재 서울대 캠퍼스 복음 사역의 지형도 소개와 그 성경적 의미를 진단했다. 신동식 목사(기윤실 자발적 불평운동 본부장)의 ‘코로나 19 시대의 지혜로운 교회 생활’은 현재 상황의 역사적, 교회적 의미와 그 한복판에서의 신앙생활의 실천 방향을 제안했다. 2부에서 김유준 목사(은진교회 담임목사)의 ‘주의 은혜의 해를 실천하는 회년 공동체’는 신촌지역 캠퍼스 사역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현장 사역자로서, 청년들에게 공동체 정신의 본질적 회복을 위한 회년 정신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종철 교수(광운선교회회장, 전자융합

공학과)의 ‘코로나 이후의 대학교육’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관계와 소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소개와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을 나눈다. 김태형 목사(석관중앙교회 청년부)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는 ‘코로나 19’ 상황에 반응하는 지역 교회 청년 공동체의 현실과 청년 사역자로서의 고민과 기대의 방향을 전하고 있다. 나영호 간사(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U.B.F)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캠퍼스 및 청년 공동체의 성찰과 방향’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캠퍼스 전도와 제자 양육, 연합 사역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현재 ‘코로나 19’ 상황의 신앙적 의미와 캠퍼스 사역의 경험과 희망을 나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또 이 시대 현장 사역자들의 성찰과 지혜가 담긴 메시지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경을 통해 명백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범죄가 만연할 때, 이를 경고하시거나,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재난을 사용하신 것에 주목한다. 가령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

〈7인 7색의 성찰과 방향 : 코로나 19 시대의 캠퍼스와 청년사역〉 박정우 외 / 우리시대 / 2020



로 갔을 때,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 래도 회개하지 않자 바다에 몸을 던지게 하셨으며, 결국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하셔서 처음 가라고 명령했던 니느웨에 토해놓도록 하셨다. 물론 다른 사례도 읍 기에서 찾을 수는 있다. 읍은 완전했지만, 갑자기 모든 소유와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다. 몸에는 심한 종기가 나서 기와로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인다. 읍의 친구들은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받은 벌이라고 성급히 결론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읍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한다. 그리고 나는 선하며, 정의롭고, 거룩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개인의 고통을 진단할 때는 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두어야 하지만, 한 민족적 차원에서, 한 국가적 차원에서, 더 넓게는 인류적 차원에서 내려진 ‘사인’(sign)에 대해서는 상황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즉, 필자는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시대 모든 민족, 나라, 인류의 차원에서 그동안 존재해왔고 또 심화되어 왔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회개의 촉구이고 경고라는 믿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가 그동안 범해왔던 전면적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의 죄악들, 각 교단과 교회들의 내부 자정 능력 저하와 거룩함의 상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무너져버린 믿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

의 경고로서 ‘코로나 19’ 사태를 읽는 것이다.

〈7인 7색의 성찰과 방향〉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필자가 아는 바로는 광운대 수요 채플을 통한 이 시리즈 메시지 나눔 기획은 2020년 6월경 시작되었다. 이때는 곧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었고 필자도 그 기대를 품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책을 기획하고 한 부분을 직접 집필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로나 19’는 훨씬 더 강력하며,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목사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은 그때 전혀 동의할 수 없었지만, 현재 정확히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는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을 향한 놀라운 통찰과 지혜가 담겨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코로나 19’ 시대의 의미는 물론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다. 또 회개하게 되며, 이미 우리에게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변화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일독을 권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배석현

서울 월계동에 소재한 장석교회(예장 통합)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했다. 청년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청년 사역을 섬겨왔다.

## ‘코로나 19’ 시대와 ‘공적 신앙’의 회복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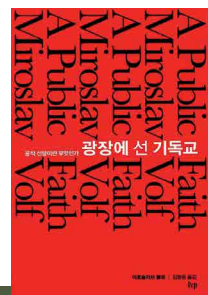
‘코로나 19’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적이어야 하는가? 공적이어야 하는가?” <광장에 선 기독교>(2014)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책이다. 저자 볼프(Miroslav Volf, 1956~)는 오래전부터 공적 신앙 관련 저서를 꾸준히 집필해 온 학자이다. 그는 미국 플러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예일대학교 교수와 예일 신앙과 문화 연구소(Yale Center for Faith and Culture)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여러 저서가 번역되어 있다. <베풀과 용서>(복있는사람, 2008), <배제와 포용>(IVP, 2012), <인간의 변영>(IVP, 2017) 등이다. <광장에 선 기독교>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1부, 2부로 나뉜다. 1부 ‘신앙의 기능장애에 맞서’(1-4장)는 몇 가지 ‘신앙의 기능장애’가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는지, 또 어떻게 그에 맞서야 하는지를 밝힌다. 2부 ‘참여하는 신앙’(5-7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다른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제공한다.

볼프는 이 책에서 단언한다. “신앙인은 각자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15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공적 영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는 다만 올바른 공적 신앙의 실현을 위해 두 가지를 강력히 경계한다. 하나는 특정한 자기의 신앙적 입장을 절대화하여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는 ‘전체주의’이고, 또 하나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의 목소리를 일체 배제하려는 ‘세속주의’이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이 양극단은 모두 ‘신앙의 기능장애’ 현상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볼프에 따르면, 기독교는 ‘예언자적 종교’이며, ‘상승’(ascent)과 ‘회귀’(return)의 작동 구조를 반드시 갖는다. 우선 ‘상승’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메시지를 받는 ‘수용적 사건’을 말한다. 그다음 ‘회귀’는 상승 경험의 당사자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가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창조적 사건’을 말한다.

문제는 이 ‘상승’과 ‘회귀’ 과정 모두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승’ 과정의 기능장애는 가령 모세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메시지 수용자가 하나님과 만남 자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받은 메시지를 자신이 정해놓은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킬 때 발생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받은 메시지를 종종 십자가 복음이 아닌, 자기 욕망 실현을 위한 파괴와 폭력의 도구로 오용한다. 한편 ‘회귀’ 과정에서의 기능장애는 메시지 수용자가 그것을 세상에 적용할 때, ‘신앙의 나태함’이나 ‘신앙의 강요’를 통하여 발생한다. 신앙의 나태함은 당사자가 메시지의 적용 과정에서, 자기가 속한 체계에 매몰되어, 악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짐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령 히틀러 체제 속의 홀로코스트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이나 18세기 영국의 노예무역 상

〈광장에 선 기독교〉 미로슬라프 볼프 / 김명윤 옮김 / IVP / 2014



인 같은 경우이다. 이와는 반대로 신앙의 강요를 통한 ‘회귀’ 기능장에는 당사자가 메시지를 자기 욕망과 분리하지 못한 채, 세상 변혁의 실현을 조금씩 도모하려는 강박관념에 기인한다. 이때 성경 말씀의 적용은 당사자의 어떤 욕망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근본주의적 신앙인들의 정치참여 성격이 이에 해당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겉으로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지, 실제로는 세상에 작동되고 있는 도덕적, 합법적 영역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폭력과 불법조차 오직 특정한 욕망의 관철을 위해 용인하면서 치닫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볼프는 우리가 신앙의 기능장애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적 ‘인간 번영’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눅 10:2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인간 번영’을 원하시며, 그것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전 1:30, 갈 2:20). 볼프는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고쳐야 한다는 책임감’과 ‘공공선을 통한 섬김’이라는 소명이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요 20:21). 또한 “다원적인 세상

에서 모든 종교의 주된 사명은 사람들이 보잘 것 없는 희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147면).

‘코로나 19’ 시대 한복판에서, 볼프가 이 책에서 안내하는 논지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는 도덕과 사회적 약속을 배제한 채, 오직 자기 방식의 신앙 실천을 고집하거나 강요하려는 ‘전체주의’ 입장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정교분리를 빌미로 그 대척점에서, 기독교의 공적 역할을 일체 간과하는, ‘세속주의’ 입장도 결코 대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종교가 대중의 광장을 떠나거나 밀려나도 광장은 비지 않는다. “종교가 광장을 떠나면 세속주의가 궁극적(overarching) 관점의 광장을 차지하게 된다.”(177면). 이렇듯이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성 문제에 도전받고 있는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공적 신앙’의 회복을 위한 값진 지혜를 선물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이자 침신대 겸임교수이다. 지난 27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에서 청년대학생들을 줄곧 섬겨왔다. 침신대에서 공부했고(조직신학, Ph.D), 서울대학교목회 목사(2012-2016)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 불신앙과 혁명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저자 흐룬 판 프린스터르르(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네덜란드의 영향력 있는 칼뱅주의 그리스도인 정치가이자 정치학자였다. 그는 지난 약 150년간의 유럽 역사와 혁명의 발생, 그리고 역사 전개에 관한 진지한 연구 끝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불신앙의 열매라고 확신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확신을 가지고 1845년 가을 21명의 지인들 앞에서 매주 토요일에 자기 생각을 발표했던 강연 15개를 묶어 1847년에 출판한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혁명과 무신론의 상관성을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 전개 분석 속에서 설파해 나간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출생하여(1801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821년 사망)와 나폴레옹 2세(1832년 사망) 및 3세(1873년 사망)와 동시대를 살고 1876년에 사망했다. 따라서 저자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관찰자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거대 서사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 혁명 와중에 등장한 ‘이성의 여신’의 행진은 혁명의 불신앙적 성격에 관한 절정의 상징이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성에 종속되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기독교가 등장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붕괴와 교회의 약화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꿈꾸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 흐름을 가속화시킨 대표적 인물에는 정치 분야

에서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와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있었다. 이들이 설파한 사상이 프랑스 혁명 직전에 널리 유포되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저자는 ‘벨기에 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1561)을 자신의 신앙 신조로 가지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혁명 사상이 그 신앙고백 36항과 완전히 대립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루소의 사상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는 오직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 의지의 산물이다. 사회의 제반 제도와 행동의 원리, 선과 악, 윤리와 비윤리의 기준이 모두 집단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집단 의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으며, 그것의 실현인 국가는 토마스 홉스(Hobbes, Thomas)의 ‘리바이어던’이 된다. 즉 국가는 전능하고 개별적이고 전포괄적이고 전제적이며 법 위에 존재하며 절대적이며 무신론적이 된다. 결국 국가는 우상이 된다. 여기에 신의 존재나 기독교를 위한 공적인 자리는 없다. 신앙도 개인적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혁명의 진행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났다. 하나는 집단 의지의 절대성이 독재를 초래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각 개인의 자유가 말살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집단 의지란 결국 다수의 의지이지 모두의 의지가 아니므로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초래한 대혼란과 공포 정

〈불신앙과 혁명〉(Unbelief and Revolution)  
호른 판 프린스터러르 / Lexham Press / 2018



치, 나폴레옹의 등장, 뒤이은 볼셰비키 혁명과 제3 제국의 등장은 이 설명의 틀에 들어맞는다. 이 정치적 난제의 해결책으로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론’(sphere sovereignty)을 제안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자 역시 이 가능성을 기독교적 사상이 사회이념이었던 중세의 정치제도에서 찾은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 생각의 흔적은 〈신앙과 삶〉 지난 호에서 소개한 아우즈바르트와 바르톨로뮤의 〈현대를 넘어서〉(Beyond the Modern Age)에서도 발견된다.

저자 호른 판 프린스터러르는 혁명의 무신론적 원리가 궁극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관념은 실현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종종 혁명은 자체 치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간성의 ‘악함’에 의해서 반박된다. 사회적 혼란의 본질은 무신론적 정치사상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그것이 끝없이 좌절되는 과정이다. 저자는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즉 권위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회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며, 사회의 제반 분야가 상당한 자율권을 획득함으로써 통치자의 권세가 자연스럽게 제어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왕정복고에 대한 향수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던 당시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핵심은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원리, 곧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문제이다. 불신앙의 원

리 위에 서 있는 그 체제 속에서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신앙의 원리에 입각한 근본적인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네덜란드 신칼뱅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발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당’(Anti-Revolutionary Party) 강령과 정치에서 이러한 사상이 구현되어가는 과정은 기독교적 정치의 한 시도가 되었다. 호른 판 프린스터러르의 통찰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과 해법에 대하여 많은 빛을 비추주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정권에서 드러났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호른 판 프린스터러르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안목과 투철한 이념을 가진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한국에서도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 ‘새벽밥’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강남교회

김상순 (강남교회 청년2부 목사)

2021년 9월 강남교회(고문산 담임목사) ‘새벽밥’ 봉사는 20년을 맞이하며 여러 감사와 기념의 시간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이 사역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잠시 멈추었다. 지역 특성상 방역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크지만 청년들을 위하여 그렇게 결정하였다.

‘새벽밥’ 섬김은 20여 년 전 수험생들을 위한 아침밥을 나누는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과였다. 방송매체에서 때때로 고시생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보는 고시생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애쓰는 청년들이었고, 권사님들은 이들을 응원하고자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섬겨왔다. 3년 전부터는 ‘작은 사랑나눔회’와 연계하여 강남 인근 7개 빵집의 도움을 받아 토요일 새벽마다 ‘새벽 빵’도 나눠주고 있다.

이 사역은 장로님들께서 나선 것이고 한파와 태풍이 불어도 멈춘 적이 없다. 권사님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새벽밥을 지으신다면, 장로님들은 빵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매주 수고하고 계신다. 여기에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년들의 섬김이다. 매일 자원한 10여 명의 청년이 나와서 설거지와 식당 뒷정리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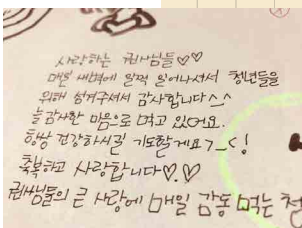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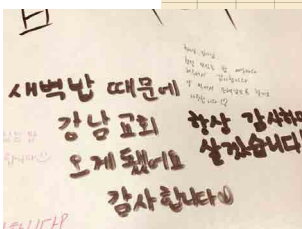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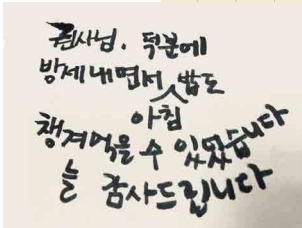
강남교회가 지역 교회로써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사역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20여 년을 지속해 올 때는 분명 전교회적 차원의 한결같은 동의와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고자 하는 담임목사님의 사역 방향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정신을 뒷받침 해주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매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지역 교회로서 어떻게 지역 사회를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선포된다. 동시에 2004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 학교’는 이론과 적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성도들을 교육한다. 매주일 설교를 통한 도전과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통한 교육은 강남교회가 지난 20여 년간 지치지 않고 ‘새벽밥’ 사역을 이어 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19’ 사태로 잠시 멈추어 서서, 언젠가 다시 곧 이어갈 새로운 ‘새벽밥’ 섬김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다. 놀라운 것은 ‘새벽밥’ 섬김 사역이 멈춘 현재 상황에서도 ‘새벽밥 후원 헌금’은 매주 그치지 않고 드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남교회의 저력은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하게 될 사역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새벽밥’ 사역을 통한 많은 청년들의 변화와 열매를 목도하였기에 강남교회는 감사해 하며 앞으로 도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FAITH & LIFE**



강남교회 '새벽밥 봉사' 섬김을 받았던 어느 청년의 감사 편지

## 강남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노량진에서 임용고사 공부를 한 29살 청년입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노량진에 머물며 강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고향으로 가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20살에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 은혜를 받고 찬양팀, 리더, 제자훈련, 청년부 임원 등으로 봉사하며 나날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었지요. 그리고 4년 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간호사라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사회생활, 3교대 근무 등을 핑계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점차 죽음 앞에 선, 많은 사람들과 사투하며 제 삶은 더욱더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음과 가까워졌습니다. 말씀, 예배, 동역자도 모두 싫어졌어요. 가끔 예배의 자리로 나갔지만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질 않더군요.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 시작하고 노량진에 와서 고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언니를 통해 강남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밥을 준다는 말에 방문했고 언니가 말씀도 교회 사람들도 너무 좋다는 말에 곧 8개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략) 강남교회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방인, 외부인, '새가족'으로 8개월을 강남교회에 다니는 동안 단 한 분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와 같은 시간에 새벽밥을 제공해주시는 분들과 설거지 봉사하는 청년들은 모자 폭 놀려선 채 초라한 모습으로 쭈뼛거리며 예배당에 들어서는 저에게 먼저 인사해주시고 항상 환한 웃음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중략) 강남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남교회 덕분에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 마음을 많이 열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에 앞으로 강남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강남교회에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고향에서 나누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 받고 억압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강남교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략)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노량진 강남교회를 사랑한 임용고사생 드림

 글쓴이 무명

강남교회 '새벽밥' 섬김을 받았던 어느 청년

#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성경 경제학적 접근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 논문은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성경 경제학’(biblical economics)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양태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성장률이 급락했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우선 ‘코로나 19’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두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급락이다. 사람과 물자 이동이 제한되어 거래가 단시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 기업의 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한 수출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제2차 팬데믹(2020년 7월 기준)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1.2%에서 -2.1%로 떨어뜨렸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둘째, 일자리의 급감이다. 즉 ‘코로나 19’ 감염자 폭증은 취업자를 급감시킨다. 이때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



논문은 이 대안으로 ‘성경 경제학’(biblical economics)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다스리라’(창 1:28)라는 문화명령

등에 기초한다. 성경적 원리를 자본주의에 맞게 적용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주주중심 자본주의’를 재성찰하여 ‘하나님-인간-자연’의 관계성을 형성하는 생명 중심의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경제와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모색한다.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중심 자본주의’를 통한 보완, 효율성 중시에서 안전성 중시를 함께 모색,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기본철학과 일맥상통 등을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경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이슈, ‘경제 민족주의’와 ‘빅 브라더’(big brother) 유형의 큰 정부에 대한 우려 등을 성경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특별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기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다. 앞으로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잘 해석하여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서의 ‘성경 경제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이 계속 뒤따라야 함을 과제로 남겼다.



본 논문은 2020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사회과학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논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wide.or.kr](http://www.worldwid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팬데믹과 기독교 선교

유용욱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팬데믹’(pandemic)이 기독교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현재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가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에 종종 발생했던 전염병 팬데믹을 조우하면서 예배와 선교에 큰 위협을 받아 왔다.

첫째, 교회가 경험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전염병 팬데믹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65년부터 15년 동안 지속되며, 로마제국의 25~35% 인구를 사망케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9년부터 약 13년 동안 지속되며, 로마에서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이때 전염병은 흑사병, 홍역, 천연두 등일 것으로 추정한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따르면, 당시 로마인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 환자들을 내쫓고, 도피하기 급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고, 정성을 다해 장례도 치루어 주었다. 역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실천이 로마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선교에도 기여했다고 증언한다.

둘째, 종교개혁 시대에는 1511년부터 1570년까지 전염병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이 시기의 전염병 팬데믹은 주로 흑사병이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이 있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치루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칼뱅도 흑사병이 돌던 제네바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목회자의 소명을 다하였다. 쾰빙글리 역시 흑사병 발병한 취리히로 돌아와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역사는 증언한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 역시 선교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셋째, 한국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도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 팬데믹이 있었다. 19세기 말, 당시 한국 사람들은 전염병을 귀신이 준다고 생각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다가, 병이 깊어지면, 자녀나 가족이 죽기만 기다렸다. 그때 선교사들은 그 환자들을 서양 의술로 치료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였다. 역사는 이러한 교육과 의료 사역이 한국 개신교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기에, 팬데믹은 오히려 기독교 선교에 극적인 선교의 기회가 되었다.

넷째,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도 선교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시 당국의 ‘코로나 19 지역 거점병원’ 제안을 수락하고 큰 활약을 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바로 1889년 미국 북장로회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가 세운 대구 제중원의 후신이었다. 현재 한국 교회 선교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교회가 만난 여러 전염병 팬데믹들이 교회 공동체와 선교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을 확인한다. 오히려 전염병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은 선교적 차원에서 보자면, 교회가 그 속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사명을 다할 때, 선교를 더 역동적이고 극적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 논문은 2020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생태환경&건강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wide.or.kr](http://www.worldwid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에 관한 연구

양희석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 논문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소비주의의 향방을 모색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비생활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할 방안은 없는지, 코로나 이후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 원인 중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와 이익 개념이 있고, 더 깊은 데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 즉, 탐욕적 소비자본주의가 오늘날 팬데믹의 근원적인 뿌리라 할 수 있다.

첫째, 야생 동물의 식용화 문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뱀, 사향고양이, 독수리, 박쥐 등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식용화하는 과정에서 도축할 때 그런 동물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았다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금하고 있다(레 11장, 신 14장).

둘째,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른 야생 동물의 서식지 붕괴 문제이다. 난개발하게 되다 보니, 야생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살 곳을 잃은 야생 동물은 인간의 주거지 가까이 접하게 되었다.

셋째, 인류는 자연적 생산이 아닌 반자연적이고 인공적인 생산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연농법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위해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농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인류의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스스로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되었다.

넷째, 오늘날 인류를 팬데믹으로 몰아간 데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 한계, 그리고 더 깊은 데는 인간

의 탐욕도 도사리고 있다. 즉 인류의 탐욕적 소비자본주의가 오늘날 팬데믹의 근원적인 뿌리라 할 수 있겠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약 1:15)라는 말씀은 오늘날 인류가 주목해야 할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듯하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오늘날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재앙, 이 팬데믹 상황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면 인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탐욕으로부터 야기된 소비자본주의의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대량 생산하고, 자연을 난개발하고, 이익을 위해 기계 농업을 취하는 이 모든 탐욕적 소비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안으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소비주의’(Post Covid 19 Consumerism)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높아진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동물은 자연환경으로,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로, 식용 동물만 먹고, 비정상적인 탐욕적 식육에 기인한 야생 동물 섭취를 금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과대한 소비 생산이 아닌 적정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 19’ 재난은 탐욕적이며 비이성적 인간들에 대한 경고이다. 따라서 탐욕적 소비주의를 반성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비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의 향방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2020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사회과학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wide.or.kr](http://www.worldwid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1년 총회 개최 안내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오후 8시 / 장소: Zoom 회의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본부(사무국) 주소 이전 알림(2020.11.21.)

새주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5, 수서타워 910호

## 2021년 제3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Zoom 회의

## 학술지 <신앙과 학문>

- '한국연구재단'(KCI)의 2021년 학술지 실태 점검 대상 심사받음 : 결과 【양호】(2020. 12. 22)
- <신앙과 학문> 25권 4호(2020년 12월 31일) 발간 : 강진구(고신대 교수) 논문 등 총 8편의 논문 게재

## 실행위원 이상민 박사(서울 국제고 교사) 신간 저서 발간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고북이, 2020)

자크 엘뤼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Jacques Ellul)

## 2021년 신규 후원 및 후원금 인상 교회

백석대 백석정신아카데미, 남서울교회(화중부 목사), 일원교회(이성은 목사), 개봉교회(노창영 목사)

\*귀한 후원과 동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까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고 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외교학), 신응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영(총신대 교수, 유아교육),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2021년 봄학기부터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과정(M.Div – WPS)이 새롭게 개설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 40여 명이 참여한 1기 기본과정은 2월에 수료식이 있고, 2기 기본과정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 2기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 올해 CTC는 '기본과정'에 이어서 어린이 & 청소년 세계관 교육을 위한 '강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1월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보기 프로그램인 '무비씽킹' 세미나(〈라이온 킹〉 & 〈겨울왕국〉)를 진행하였고, 2월에는 게리 토마스의 〈부모학교〉(CUP) 책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3월부터 〈나니아 연대기-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개강한다.

- **기독교세계관교육 베이직 세미나** : 줌(zoom)으로 온라인 세미나 진행

\* 일시 : 2월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신청 및 문의 : 010-2792-5691 (CTC 사무국)

##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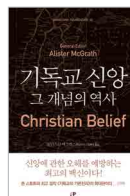


###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

의학박사 티모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사고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성경적 모델  
사고의 복합적 차원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논한 책은 처음이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낮은 자존감,  
막연한 죄책감, 원한과 적의, 의존상태,  
해로운 관계습성 이 책은 이 모든 해결의 기재들을 담고 있다.



### 〈기독교 신앙, 그 개념의 역사〉

알리스터 맥그라스 편집 주간 / 오현미 옮김  
알리스터 맥그라스 특별 기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다!  
신앙에 관한 오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이다.  
장인들이 만든 신학의 세계지도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0년 11월, 12월결산)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
|--------|------------|------------|------------|-------------|-------------|------------|------------|
| 경상수입   | 이사회비       | 470,000    | 2,270,000  | 인건비         | 일반급여        | 4,600,000  | 4,600,000  |
|        | 임원회비       | 1,340,000  | 610,000    |             | 기타급여        | 600,000    | 600,000    |
|        | 일반회비       | 4,791,000  | 4,746,000  |             | 소계          | 5,200,000  | 5,200,000  |
|        | 기관후원금      | 2,500,000  | 2,900,000  | 경상비         | 사무실임대료      | 2,000,000  | 2,850,000  |
|        | 월드뷰후원금     | 0          | 0          |             | 사무실관리비      | 0          | 118,858    |
|        | 사무실후원금     | 0          | 0          |             | 통신비         | 101,270    | 118,690    |
|        | CTC후원금     | 70,000     | 70,000     |             | 우편료         | 38,150     | 12,340     |
|        | VIEW후원금    | 970,000    | 1,240,000  |             | 소모품비        | 115,404    | 19,690     |
|        | 기타후원금      | 2,000,000  | 2,000,000  |             | 비품          | 0          | 92,940     |
|        | 월보구독료      | 417,500    | 417,000    |             | 식비          | 80,000     | 294,180    |
|        | 학술지원금      |            |            |             | 수선비         | 494,080    | 50,000     |
|        | 세계관사역지원금   | 0          | 0          |             | 복리후생비       | 568,340    | 630,340    |
|        | 기타         | 10,000     | 455,000    |             | 퇴직연금        | 225,670    | 225,670    |
|        |            |            |            |             | 컴퓨터         | 0          | 46,500     |
|        |            |            |            |             | 회의비         | 72,300     | 29,160     |
|        | 소계         | 12,568,500 | 14,708,000 |             | 회계용역비       | 55,000     | 55,000     |
| 기타수입   | 일반이자       | 0          | 0          | 연구지원비       | 연구회연구지원     | 0          | 0          |
|        | 법인이자       | 0          | 0          |             | 도서구입비       | 0          | 0          |
|        | 법인세환급금     | 0          | 0          |             | CTC후원금      | 138,350    | 69,175     |
|        | 기타수입       | 0          | 0          |             | VIEW후원금     | 2,682,730  | 1,080,870  |
|        | 기금차입       | 10,400,000 | 400,000    |             | 학술지원금       | 0          | 0          |
|        | 결산이자       | 0          | 10,621     |             | 세계관사역지원금    | 0          | 0          |
|        | 예수금        | 267,810    | 327,420    |             | 10선컨텐츠      | 0          | 0          |
|        |            |            |            |             | 소계          | 2,821,080  | 1,150,045  |
|        |            |            |            | 출판(회지)      | 월드뷰구입비      | 0          | 0          |
|        |            |            |            |             | 인쇄비         | 0          | 2,343,760  |
|        |            |            |            |             | 발송비         | 0          | 590,160    |
|        |            |            |            |             | 소계          | 0          | 2,933,920  |
|        |            |            |            | 기타          | 임차보증금       | 9,000,000  | 0          |
|        |            |            |            |             | CUP기금적립     | 400,000    | 400,000    |
|        |            |            |            |             | 세금          | 309,800    | 26,150     |
|        |            |            |            |             | 잡비          | 13,800     | 5,400      |
|        | 소계         | 10,667,810 | 738,041    |             | 소계          | 9,723,600  | 431,550    |
| 학회     | 학회이사회비     | 170,000    | 170,000    | 학회          | 학회강사료       | 0          | 0          |
|        | 학회행사수입     | 530,000    | 0          |             | 학회장소사용료     | 0          | 0          |
|        | 자료집판매      | 0          | 0          |             | 학회자료제작비     | 0          | 0          |
|        | 학회지판매      | 0          | 0          |             | 학회홍보및기타     | 686,520    | 0          |
|        | 학술지심사비     | 350,000    | 70,000     |             | 학술지인쇄비      | 108,000    | 890,500    |
|        | 학술지게재료     | 0          | 2,650,000  |             | 학술지발송비      | 195,000    | 0          |
|        | 저작권료       | 0          | 0          |             | 학술지심사료      | 0          | 0          |
|        | 학회기타수입     | 45,800     | 0          |             | 학회조교비       | 0          | 0          |
|        |            |            |            |             | 학회기타        | 100,000    | 0          |
|        | 소계         | 1,095,800  | 2,890,000  |             | 소계          | 1,089,520  | 890,500    |
| 전월 미수금 | 전월 CMS 입금  | 1,159,440  | 856,280    | 차월이월 수입금    | 이달 CMS 미수금  | 856,280    | 849,340    |
|        | 전월 이니시스 입금 | 66,230     | 0          |             |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 0          | 0          |
|        | 소계         | 1,225,670  | 856,280    |             | 소계          | 856,280    | 849,340    |
| 당월 수입액 |            | 25,557,780 | 19,192,321 | 당월 지출액      |             | 24,482,795 | 16,509,878 |
| 전월 이월액 |            | 29,753,211 | 30,828,196 | 차월 이월액 (잔액) |             | 30,828,196 | 33,510,639 |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회원후원

(2020년 11월)

3천 김성권,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선헌,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무,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웅, 공승근,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해조, 범경철, 서유미, 손영권, 송시성,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은, 장현일,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손화정, 이운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김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봉우, 김대원,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배, 김상범, 김상욱, 김상일, 김선헌,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여은, 김영규, 김영숙, 김원국, 김용국, 김유니스, 김윤진,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자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섭, 김호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복배,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상현,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충철, 송철호,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진,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유화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종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현중,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하, 장은혜(장은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항복,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민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정숙,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조경덕, 조미연, 조성근,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영,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태화,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성준, 황성원,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백예은, 이경우, 정상성, 2만 강용란, 김남준, 김보경, 김세광, 김용식,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송찬호, 심은희,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강, 이기서, 이연우, 장인성, 정동성, 정훈, 조창현,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나용근, 마민호, 문준호, 박신현, 박정호,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진규, 송태현, 신재경, 오의석,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정철, 황정진, 4만 문석운, 박순자, 우병훈, 조예랑, 5만 김종우, 김택호, 박정성,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은애, 한운식, 6만 강은주, 김인수, 석종준, 최영욱, 7만 박문식, 조지혜, 최태연, 10만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고경희, 김민철, 정일규, 30만 박동열, 60만 김지현,

계 8,058,500원

##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마포중앙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6만 수원가톨릭대학교교도서관, 호남신학대학교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더세움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4,670,000원

전체 12,728,500원

## 회원후원

(2020년 12월)

3천5백 박도명, 김봉현, 김선헌,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무, 최원길, 허태실, 5천 강대웅, 공승근,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해조, 범경철, 서유미, 손영권, 송시성,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은, 장현일,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성호,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운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김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봉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경,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배, 김상범, 김상욱, 김상일, 김선헌,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여은, 김영규, 김영숙, 김원국, 김용국, 김유니스, 김윤진,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자남, 김주영, 김지곤,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섭, 김호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복배,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상현,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충철,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양성진,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종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현중,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하, 장은혜(장은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항복,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민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래, 정정숙,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조경덕, 조미연, 조성근,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영,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태화,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성준, 황성원,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백 주성탁,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백예은, 이경우, 정상성,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세광, 김용식, 김인수, 김정옥, 김정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심은희,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강, 이기서, 이연우, 장인성, 정동성, 정훈, 조창현,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나용근,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진규, 송태현, 신재경, 오의석, 오의석, 이근호, 이은실, 이창우,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정철, 4만 김현숙, 문석운, 박순자, 우병훈, 이덕영, 5만 김종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성,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전희경, 정은애, 한운식, 6만 석종준, 7만 박문식, 최태연, 8만 조현미, 9만 김인준, 10만 김종철, 김태환,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20만 박동열, 손정영, 30만 홍숙의, 60만 정희영, 125만 양승훈

계 9,398,000원

## 기관후원

5만 개동교회, 고양제일교회, 마포중앙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6만 라브리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다온공동체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분당우리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계 5,010,000원

전체 14,408,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편집위원 소개

|              |     |                                                  |
|--------------|-----|--------------------------------------------------|
| <b>발행인</b>   | 손봉호 |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
| <b>편집장</b>   | 신국원 |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
| <b>편집위원</b>  | 김대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
|              | 김유준 |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
|              | 문준호 | 디오스텍 부장,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
|              | 박동열 |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
|              | 박영주 |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
|              | 박진규 |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
|              | 박흥식 |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
|              | 석종준 |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
|              | 양성만 |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
|              | 윤현준 |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정회원                      |
|              | 이병주 |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
|              | 이상민 |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
|              | 장수영 |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
|              | 전명희 |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
|              | 조성표 |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
|              | 최태연 |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
|              | 최현일 |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
|              | 추태화 |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
|              | 황영철 |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셔리대 Ph. D, 정회원            |
| <b>편집실무자</b> | 석종준 | 사무국                                              |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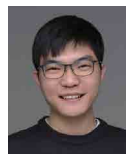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신청자 정보

|      |      |
|------|------|
| 성명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이메일  |
| 주소   |      |

## 회원가입 및 방법 선택

|      |               |       |            |                      |                            |
|------|---------------|-------|------------|----------------------|----------------------------|
| 후원금액 | □ 1만원         | □ 2만원 | □ 3만원      | □ 5만원                | □ 기타 (                  원) |
| 후원방법 | □ 매월 CMS 자동이체 |       | □ 매월 직접 입금 |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                            |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청자                  | 이체일 □ 25일 □ 30일 |
| 예금주와의 관계             | 예금주 휴대전화        |
|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                 |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유 기

신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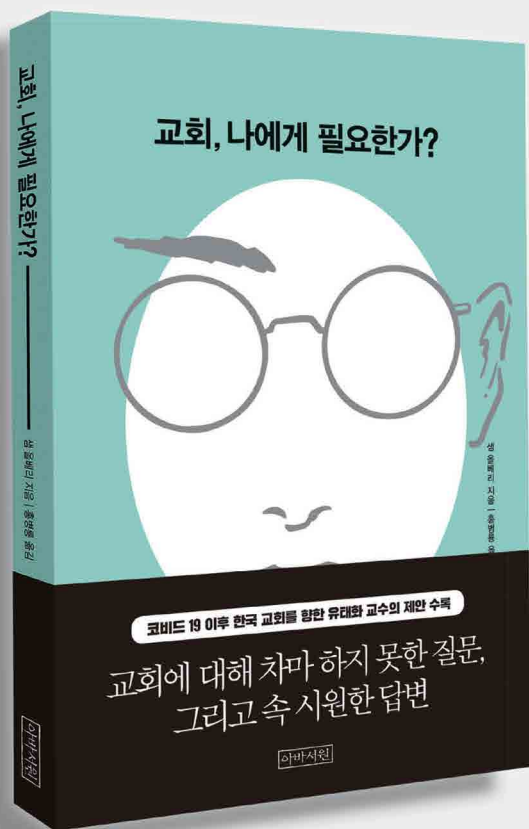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거부할 이유를 찾는 이들에게 답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생물 올베리 지음 | 152페이지 | 128\*188 | 10,000원



**Why** should I bother with church?

“내가 왜 교회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를

**How** should I bother with church?

“나는 어떻게 교회에 신경을 써야 할까?”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답을 제시한다.

“교회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상황이 더 치밀하게 제기한 물음에  
응답하는 간략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책이다.”

\_유태화 교수(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2021년 정기총회

동역자님의 헌신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었던 한해도  
즐거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학술동역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볼 수 있었기에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년 감사예배와 2020년도 사역 보고 및  
2021년의 새로운 비전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사랑하는 동역자님을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이사장 손봉호  
실행위원장 박동열

2021.02.16(화) 저녁 8시  
온라인(Zoom) 회의  
링크: <https://url.kr/mnMeoi>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